第14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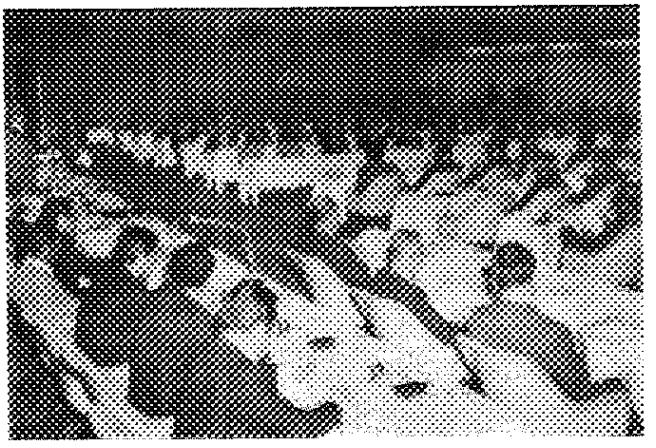
THE 14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82. 4. 13～15 TOKY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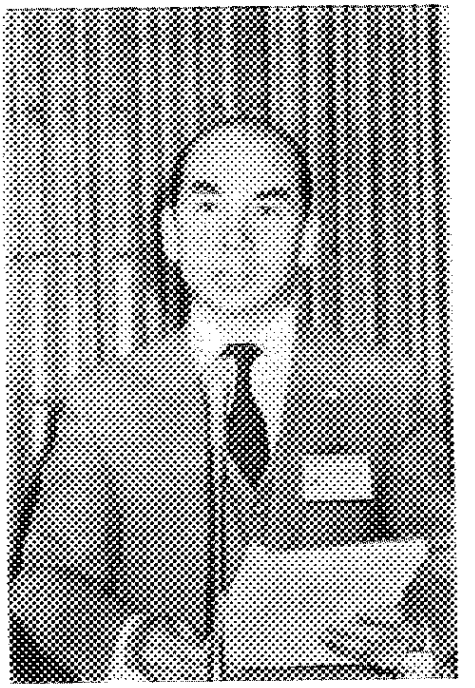
報　告　書

韓 日 經 濟 協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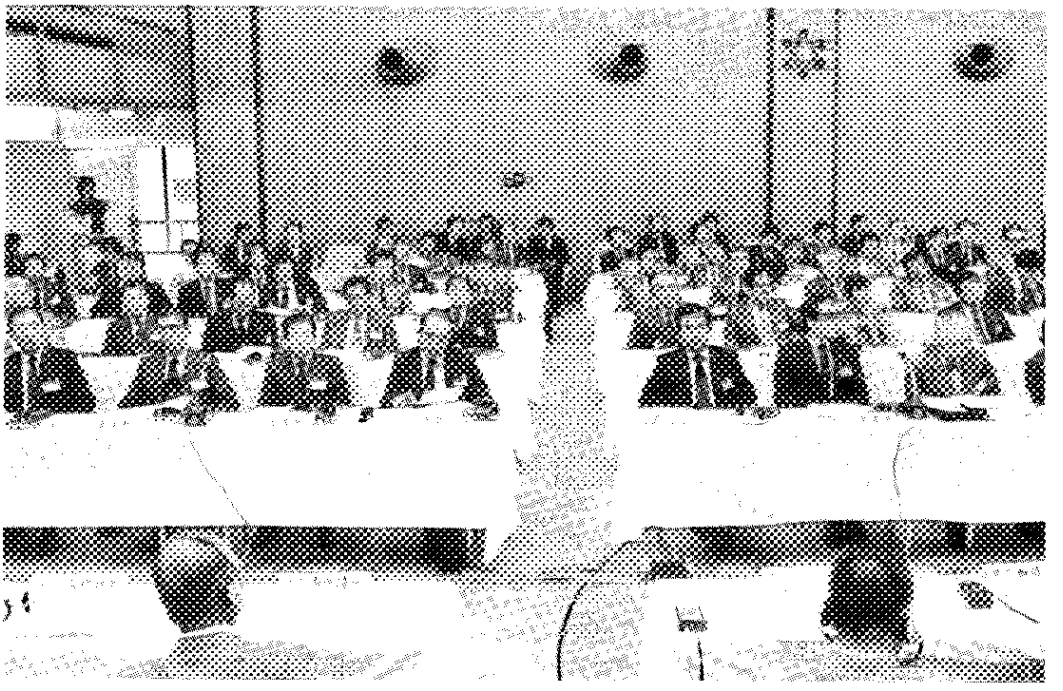
▲第 14 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1982年 4 月 13 ~ 15 日 日本 東京에서



▲合同會議에 參席한 兩側代表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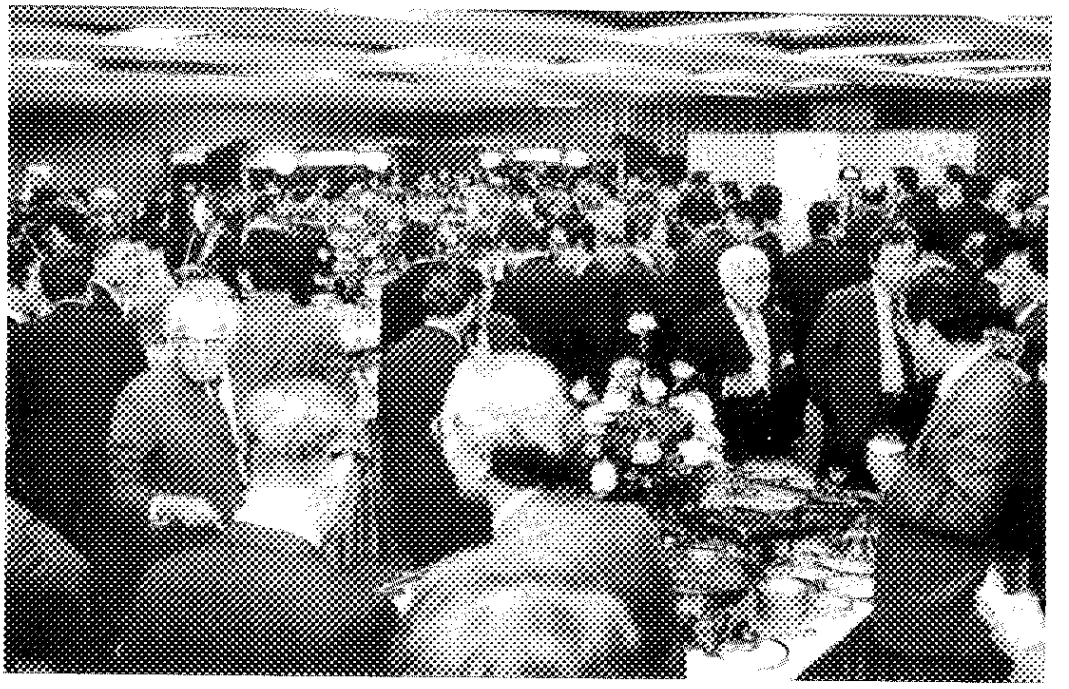


▶朴泰俊 韓國側團長 入事



▲韓國側 代表團

▼리셉션 全景



目　　次

1．兩側團長　人事

가) 韓國側 …… 3

나) 日本側 …… 9

2．致辭（須之部　量三　外務次官）…… 13

3．祝辭（崔慶祿　駐日韓國大使）…… 15

4．經過報告 …… 19

5．會議日程 …… 21

6．會議議題 …… 23

7．兩側代表團　名單

가) 韓國側 …… 25

나) 日本側 …… 31

8．基調演說

가) 韓國側："韓國經濟의　現況과　韓日經濟交流에
있어서의　中小企業協力의　方向" …… 37

中小企業銀行　銀行長　金善吉

나) 日本側："日本經濟의　現狀과　展望　및
韓日經濟協力의　方向" …… 45

三井物産㈜　常務取締役　阿部良夫

9．議　　案

Ⅰ．經濟協力

(1)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經過報告 …… 49

(2)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設置　推進現況報告 …… 55

(3) 韓國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說明 ····· 59
(4) 造船關係協力 ····· 61
Ⅱ. 産業技術
(1) 第7回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報告 ····· 63
對韓投資調査團에 關한 意見····· 65
(2) 中堅·中小企業技術協力要請····· 67
(3) 最近의 經濟情勢에 對應하는 日本의 産業動向····· 79
Ⅲ. 貿 易
(1) 第9回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報告 ····· 87
(2) 貿易協力
(가) 韓國側—貿易逆調是正 ····· 91
(나) 日本側—在韓商社等의 Status, 課稅問題 ····· 103
韓國側答辯····· 107
(3) 日本의 對外經濟政策에 대하여·····109
(4) 韓國/美国貨物의 日本船 利用에 대하여 ·····113
10. 共同聲明·····115
11. 閉會辭
가) 韓國側 ·····121
나) 日本側·····123

会　長　人　事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朴泰俊

존경하는　히다까・데루團長, 그리고　日本側　顧問과　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오늘　第14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開催에 즈음하여, 本　會議開催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本人을 비롯한 韓国代表団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분에게　韓国代表団을　대신하여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6月, 서울에서　열린　第13回會議에서　本人은　韓日兩國의 經濟協力은　兩國間의　共同利害나　繁榮을　위한　단순한　協力의 次元을　넘어, 이제　하나의　地域的　經濟共同體를　形成하여야　할 중요한　轉換點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한　日本側의　私心없는 同伴者的　努力이　緊要함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　이후　日本에서　처음　열리는　本　會議에, 貴國의 經濟界가 큰 關心을　가지고　많은　代表團이　參席하셨다는　사실은　兩國間의　成熟한　同伴者的　協力關係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분의　진지한　意思表示라　믿어　마음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韓日兩國을　에워싸고　있는　國際情勢, 특히　自由世界의　經濟秩序는　아직도　混迷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0年代末의　世界的　景氣後退와　더불어　79年以後의　政治的・社會的　不安의　餘波로　1980年에는　「마이너스」成長을　기록했던　韓國經濟는　第5共和國　政府가　출범한지　1년만에　急速度로 政治的・社會的安定을　回復한데　발맞추어　이제　어느정도　安定基調

에 올라서게 되었읍니다.

지난 해에는 7.1%의 成長을 記錄함으로써 다시금 본래의 成長軌道를 되찾게 되었으며, 그동안 韓國經濟의 가장 큰 難題였던 「인플레」趨勢도 금년에는 한자리 숫자로 安定될 展望입니다.

이처럼 금후 韓國經濟는 점차 好轉될 것이나, 國際收支 赤字幅의 繼續的인 擴大, 만성적인 資本不足과 技術의 落後性등은 여전히 韓國의 發展에 대한 潛在的인 不安要因으로 남아 있읍니다.

今年은 韓国의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이 始作되는 첫해입니다.

이 期間中 우리는 物量위주의 過去의 成長「패턴」에서 탈피하고, 經濟成長뿐 아니라 社會開發에도 주력함으로써, 國民 모두가 成長의 惠澤을 均霑할 수 있는 正義로운 福祉社會 建設을 위하여 努力할 것입니다.

특히 社會的 不安要素를 뿌리뽑기 위하여, 급속히 增加하는 新規勞動力을 흡수하고 失業人口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간중 年平均 7～8%의 持續的인 經濟成長이 要求되는 바, 여기에는 莫大한 財源이 所要된다는 事實을 감안할 때, 國內貯蓄의 劃期的 增大와 함께 海外로부터의 長期的이고 良質의 資本協力이나 新技術의 과감한 導入등이 절실히 要請되는 段階에 있다 하겠읍니다.

이제 本人은 日本代表團 여러분에게 韓国의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에 대한 깊은 理解와 아울러 長期的인 資本協力에 관한 積極的인 參與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日本代表團 여러분,

우리 韓半島는 地球上에서 가장 好戰的인 北韓이라는 存在로 인하여 항상 潛在的인 紛爭發生可能地域으로 손꼽히고 있는 바, 그

들의 危脅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년 GNP의 6%, 그리고 政府豫算의 30%以上을 國防費로 支出해야만 하는 특수한 安保的 狀況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負擔이 韓國의 經濟·社會發展을 위한 投資의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읍니다.

지난해 全斗煥大統領의 南北韓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이나 直接面談 提議, 그리고 금년 1월의 統一憲法 基礎를 위한 民族統一協議會構成이나, 南北韓基本關係에 대한 暫定協定締結提議등 南北間의 緊張을 解消하려는 우리의 부단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否定的인 反應만을 되풀이함으로써 平和的 方法에 의한 南北問題解決의 意思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過重한 国防費負擔은 가벼워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됩니다.

本人은 이러한 負擔을 안은 채, 自由世界의 責任있는 構成員으로 成長하려는 우리의 努力이, 韓半島의 安全保障뿐 아니라, 日本을 包含한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繁榮을 維持하는 데 必須的인 것이라는 事實에 대한 여러분의 幅넓은 理解를 促求하는 동시에, 우리가 希望하는 資本協力은 隣接國에 의한 單純한 經濟的 支援이라는 次元이 아니라, 韓日兩國의 地域的 經濟共同體形成을 위한 同伴者的 協力이라는 相互理解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現在 兩國政府간의 懸案問題로 되고 있는 60億弗經濟協力問題도 이러한 次元에서 하루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日本政府當局의 誠意있는 노력과 民間經濟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支援을 希望하고, 이것이 韓國政府뿐만 아니라 우리 經濟人 모두의 한결같은 輿望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強調해 두고자 합니다.

한편, 資本協力分野에 있어서의 貴国의 努力은 또한 兩国사이에서 機

會있을 때마다 論議되고 있는 韓日間 貿易逆調問題에 대한 根本的인 是正策으로서, 長期的인 眼目에서의 兩國間의 經常收支均衡에 寄與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緊要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本人은 이 자리를 빌어, 특히 尖端技術의 移轉問題에 관한 日本側의 積極的인 協力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 시피, 韓國의 經濟를 發展시키고 이를 質的으로 昇華시키는데 있어서는 資本의 不足 못지않게 技術面에 있어서의 部分的인 落後性이 重要한 制約要因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各 方面에 있어서의 尖端技術의 導入이 절실히 要求된다 하겠읍니다.

兩國間의 技術移轉에 관한 論議는 두 나라의 經濟構造의 類似性으로 인해 相對方을 單純한 競爭相對로만 認識하거나, 또는 韓國의 發展이 「부메랑」效果를 誘發하고 이로 인해 日本이 被害를 입게 될 지도 모른다는 先入觀때문에 어느 面에서는 忌避의 對象이 되고 있음도 충분히 理解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本人은 民間經濟協力의 質的 成熟을 비롯한 兩國間의 참된 善隣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先入觀을 불식하고, 韓國의 技術水準向上에 日本이 積極 參與함으로써 兩國間의 相互補完的인 國際分業體系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强調하고, 이에 관한 日本代表團 여러분의 友好的인 協調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오늘부터 3日間 열리게 될 本 14回合同会議를 통하여 이상의 問題點들을 비롯하여 兩側의 共同關心事 全般에 관한 率直한 對話와 眞摯한 討議가 이루어 짐으로써 다른 어느 會

議 때 보다도 알찬 成果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人　　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日高 輝

朴泰俊韓國代表團 團長을 비롯하여 顧問, 副團長, 團員여러분.

今番 第14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를 開催함에 즈음하여 韓國側 60名 團員여러분께서 時期的으로 多忙한 가운데 모이셔서 이렇게 訪日하여 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하여 마지 않읍니다.

오늘부터 3日間에 걸쳐 日本側團員(67名)과 무릎을 맞대고 今後의 韓日兩國 民間經濟交流의 한층더 增進을 圖謀하기 위하여 忌憚없는 意見交換을 하여 具體的方策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합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韓國이 第5共和國으로 發足한 以來 韓日兩國의 關係는 새로운 時代에 들어서고 있읍니다.

昨年6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13回會議에 있어서도 이點은 特히 强調되었으나, 이 새로운 時代에 對應하는 基本的 姿勢와 實踐方策等에 대하여는 雙方의 希望과 期待가 表明되었으나, 完全한 合意를 得함에 이르지못한 아쉬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例컨데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가 雙方에 設置되고 이미 2回에 걸쳐 合同會議가 開催되었다는 것, 或은 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에의 準備作業이 始作되었다는 것등은 第13回會議의 큰 成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合同委員會 會議는 1969年以來 每年 한번도 缺함이 없이 繼

續되어 그때그때의 時期에 따른 民間經濟協力의 方向定立과 具體化에 努力하여온 것은 兩國 모두 他에 그 例를 볼 수없는 것입니다. 勿論 오랫동안 懸案인 채로 推移하고있는 案件도 있읍니다만 그것도 그때마다 雙方이 理解를 깊이하여 解決에의 길을 求하려 하고있는 것으로 그러한 意味에서도 이 合同會議의 意義는 重要하고, 將來에 있어서도 그 必要性은 더욱 强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最近에 있어서 兩國의 經濟情勢는 먼저 日本에서는 硬直한 財政의 再建이나 美國을 비롯한 EC諸國에서의 市場開放의 强한 要望등 內外의 環境은 極히 냉엄하고, 國內政策으로서는 景氣不況에도 不拘하고 그 振興보다는 行政改革에 基因한 말하자면 리틀·가번멘트(little government)의 確立만이 優先되어야한다는 輿論입니다.

한편 韓國에 있어서도 GNP는 昨年 7.1%의 成長으로 再昨年 1980年의 (-) 6.2%에서 一轉하여 回復基調에 들어서, 인프레도 大幅으로 鎭靜化되어 왔읍니다만 今年부터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에 着手하여 極히 意慾的인 內容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混迷하는 國際經濟環境가운데에서 보통이 아닌 努力을 하지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原來 우리 韓日經濟委員會는 貴國의 「經濟開發5個年計劃」에 準據하여 第1次計劃發足 當初부터 民間經濟의 協力과 交流의 擴大를 圖謀하여왔던 것으로 貴國의 經濟政策의 基本에 따른 協力만이 雙方의 國民的 合意를 얻는 올바른 길임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今番의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에 관하여서도 充分한 理解의 바탕위에 서서 累次의 5個年計劃과 같이 民間經濟協力이 許容하는 限의 成果를 얻기위하여 모든 努力을 기울일 것입니다.

昨年의 第13回會議에 있어서도 朴泰俊團長께서 序頭의 人事에서 말씀하신 「韓日兩國이 同伴者로서의 立場에서 協力하여갈 基本方向을 대략 다음의 두가지点으로 要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兩國間의 經濟協力을 위한 國民的 協調基盤의 擴大이고, 또하나는 兩國間의 經濟協力의 質의 深化라고 할 수 있읍니다」라는 말씀은 兩國이 새로운 經濟關係를 樹立하여야 할 現在, 참으로 核心을 찌른 것이며, 그러기위하여서는 雙方의 民間經濟界의 幅넓은 協力體制를 構築하여 經濟體質의 加一層의 强化를 圖謀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의 體質强化에는 먼저 民間企業이 各各 經濟合理性에 徹底하여 活力있는 運營을 이룩하여 國家社會에 貢獻하는 것이 先決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第14回 合同會議에 參加하신 兩國代表團여러분이 相互提携하여 內外의 困難한 諸情勢를 克服하여 兩國의 經濟發展에 貢獻하실 것을 크게 期待하면서 代表團여러분의 格別하신 協力을 衷心으로 바라 마지않읍니다.

致　　辭

外務省次官
須之部量三

이번 第14回째를 맞은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開會式에 招待를 받고, 韓國에서 오신 반가운 여러분, 그리고 韓國과 깊은 關係를 가져온 日本側의 여러분께서 參席하신 이 자리에서 致辭를 드리게된 것을 대단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지금까지 韓日間의 經濟交流增進에 寄與하여온 役割은 多大한 바 있읍니다.

특히 이 委員會 傘下에 貿易擴大均衡問題를 비롯하여 機械工業部門에서의 協力問題를 다루는 委員會와 또한 最近에는 幅넓은 經濟面에서의 協力問題를 檢討하는 長期構想委員會 等의 下部機構를 가지고 있어 韓日間의 經濟交流問題에 關해서 兩國의 關係者가 幅넓게, 또한 깊이있게 協議나 研究를 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堅實한 活動이 兩國間의 相互理解와 友好協力 關係를 보다 增進, 發展시키는데 크게 貢獻하고 있는 것은 재차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韓日兩國 關係者의 이와 같은 努力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韓國과 日本의 經濟關係라고 하면 자칫 利害의 對立面만이 取扱됩니다. 그러나 우리兩國은 모두 貿易을 그 立國의 基礎로 하고 있으며 國際社會에 있어선 自由貿易維持라고 하는 基本的 立場에 있어 共通의 利益을 가지고 있읍니다. 今後는 더욱 이러한 面에

着眼하여, 世界의 무대에서 서로 協力하는 體制를 强化해야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韓日兩國은 永遠한 이웃입니다. 모든 問題는 相互理解와 信賴를 깊게하는 가운데서 解決되지않으면 안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兩國에 있어서 民間經濟委員會의 보다 큰 發展과, 특히 이번의 會議가 建設的인 意見交換으로 더욱 많은 結實과 成果를 거둘 수 있기를 眞心으로 祈願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祝　　辞

駐日韓國大使
崔　慶　祿

韓日·日韓民間合同經済委員會會議　議長, 委員　그리고　內外貴賓여러분, 오늘　第 14 次　韓日·日韓民間合同經済委員會　合同会議開催에　즈음하여　本人이　祝辞를　하게　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第五共和国政府가　樹立된　以來　처음으로　서울에서　本　合同經濟委員会　会議가　開催되어　両国国民의　多大한　期待와　聲援속에　새로운　次元의　経濟協力을　為한　委員会가　構成되고　貿易拡大均衡方案, 産業技術의　移転, 中小企業間의　協力問題等, 諸般問題에　對하여　協議를　함으로써　커다란　成果를　거둔지　이미　한　해가　지났읍니다.

本人은　貴合同經濟委員会가　韓日両国民間의　友好와　経済協力의　増進을　為해　不断히　努力해　주신데　對하여　敬意를　表하는　바이며, 이러한　善隣友好協力関係를　더욱　発展시켜　나가기　為해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　것을　真心으로　敬賀해　마지　않는　바　입니다.

近間　우리를　둘러싼　国際情勢는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政治, 軍事面에서는　東西間　緊張의　高潮, 局地的　紛争의　頻発等으로　因하여　不安状態가　前例없이　深化되고　있으며　또한　経濟社会面에　있어서도　世界的인　景氣沈滯와　失業　및　인프레의　蔓延, 貿易不均衡의　拡大와　保護主義傾向의　抬頭等으로　因해　심각한　局面을　맞이

하고 있는 바, 이러한 国際環境의 冷厳한 現實은 東北亜의 平和와 繁栄이라는 共同利益을 갖고 있는 韓日両国에 加一層의 緊密한 協力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韓半島를 둘러싼 昨今의 情勢는 北韓의 時代錯誤的인 武力統一野欲의 固執과 軍備増強 및 金正日後継体制로의 移行等으로 因해 大韓民国의 安全과 나아가서는 亜細亜 및 西太平洋地域의 平和維持에 對하여 継続 커다란 威脅이 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韓国의 全斗煥大統領閣下는 이러한 韓半島의 緊張状態를 解消하고 窮極的으로는 平和的인 南北統一을 達成하기 為하여 지난해 南北韓間 最高責任者의 相互交換訪問을 提案한데 이어 今年 1月 22日에는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発表하여 統一民主共和国을 樹立하기 為한 民族統一協議会의 構成과 統一憲法의 制定을 北韓当局에 提議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平和的인 對話提議가 全民族의 全幅的인 歓迎은 勿論, 国際的으로도 広範囲한 支持를 받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収와 韓国国内政治에 對한 干渉等 我側이 受諾할 수 없는 常套的인 前提条件을 내세워 이 提案마저 拒否하고 있읍니다.

大韓民国政府는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国際環境에도 不拘하고 今年부터 持続的인 経済成長과 国民의 生活水準向上 및 国民의 社会福祉増進을 為하여 第五次 経済社会発展五個年計劃에 着手하는 한편, 1988年 서울올림픽의 成功的인 開催를 為하여 모든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経済人을 為始한 모든 国民도 이에 積極 호응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重要한 時點에 오늘부터 3일간 開催되는 今番 合同会議에서는 政府間経済協力과 並行하여 両国間 民間레벨의 経済通商

面의 보다 活発한 協力과 交流方案에 関하여 両国 経済界의 指導級人士들 間에 真摯하고 虚心坦懐한 協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며, 이번 協議를 通하여 韓日両国이 共存共栄을 이룩할 수 있는 根本的이고도 実質的인 協力方案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会議에 参加하신 両国経済人 諸位의 健勝과 幸福을 祈願하면서 人事를 代하는 바입니다.

經 過 報 告

작년 6월 서울서 開催되었던 第13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会 회의에서의 合意事項등에 대하여 오늘까지 両側 委員会의 폴로업등 活動状況을 報告드리겠읍니다。

먼저 懸案이었던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문제는 작년 11월 両国이 각각 委員会를 구성하여 같은 해 12월 14일 제1회 合同会議를 東京에서 열었으며 이어서 제2회 合同会議를 올 3月 2.3日 이틀동안 서울서 열어 앞으로의 運営 및 論議할 테마를 確定하였읍니다。 상세한 內容은 내일 日本側의 秋田委員長이 報告드릴 예정입니다.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会는 작년 6월 合同委員会에 이어 제7회 회의를 서울서 開催하였읍니다。 이 会議의 內容은 내일 日本側 浦川委員長으로 부터 報告말씀이 있겠읍니다。

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 会議는 작년 10월 神戶에서 제9회 회의를 開催, 韓国側은 金禹根 위원장 辭任에 따라 桂鳳赫 위원장으로 바뀌어졌읍니다. 이 內容도 내일 京本委員長이 報告드릴 것입니다。

작년 6월 合同委員会 会議서 合意된 事項인

(1) 中小企業協力을 위한 機構設置에 대해서는 우선 韓国中小企業의 現況과 環境에 대한 認識이 必要하다는 点에서 지난 3월 10일부터 4일간 能村 太陽工業会長을 団長으로 한 「訪韓国中小企業協力 環境視察団」을 日本商工会議所와 日韓経済協会 공동으로 파견하였읍니다。 이 報告도 내일 能村団長으로 부터 있겠읍

니다만 앞으로 中小企業協力을 위한 機構設置에 대해서는 현재 双方 모두 早期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2) 電子工業을 中心한 先端技術의 開発協力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에서 세미나 開催에 合意하여 準備가 진행되었으나 諸般 사정에 따라 延期되어 지금의 사정으로는 올 9월 하순께 실현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외에 제 13 회 회의에서 韓国側이 요청한 貿易不均衡 是正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点에 대해서는 帰国後 日本側 政府關係機關에, 日本側의 駐韓 日本商社등의 法的地位와 課税問題에 관한 要請에 대해서는 韓国側 政府關係機關에, 각각 전달할 것과 함께 善処되기를 바라는 뜻을 밝혔읍니다.

또 日本側이 要請한 海運協力에 대한 要望에 대해서도 韓国側은 政府 및 関係団体에 전달되었읍니다.

이러한 問題는 내일 合同会議의 議案이기 때문에 상세한 説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6월의 제 13 회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両側 委員会의 活動経過報告를 마칩니다.

日　　程

4月13日(火)

16:30	開会式	経団連会館　11層 國際會議場
	(1) 日本側団長　人事	
	(2) 韓国側団長　人事	
	(3) 致辞(須之部量三　外務次官)	
	(4) 祝辞(崔慶禄　大使)	
	(5) 経過報告	
	(6) 両側団員紹介	
	(7) 議長選出	
	(8) 議題採択	
17:30	基調演説	
	(1) 日本側　三井物産㈱　常務取締役　阿部良夫 "日本　経済의　現状과　展望　및　韓日経済協力의　方向"	
	(2) 韓国側　中小企業銀行　銀行長　金善吉 "韓国　経済의　現況과　韓日経済交流에 있어서의　中小企業協力의　方向"	
18:30 ～ 20:00	Reception (両委員會共同主催)	経団連会館　9層 Crystal Room

4月14日(水)

10:00 ～ 12:00	合同会議	経団連会館　11層 國際會議場

12:00 ～ 13:00	午餐会（日本側主催）	経団連会館　9層 Crystal Room
13:30 ～ 15:00	合同会議	経団連会館　11層 国際会議場
15:00 ～ 15:15	Coffee Break	
15:15 ～ 17:00	合同会議	
17:00	休会	

4月15日（木）

08:00 ～ 09:15	両側団長団　朝餐会　会議 共同声明審議	HOTEL OKURA 本館　10層　虹の間
10:30 ～ 11:15	合同会議 (1) 共同声明採択 (2) 閉会	経団連会館　11層 国際会議場
11:20 ～ 12:15	共同記者会見	経団連会館　906号室

議　　題

1．経済協力

(1) 韓日・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会　경과　보고

(2) 中堅・中小企業協力専門委員会　設置　推進現況報告

(3) 韓国　第5次　経済社会発展5個年計劃　報告

2．産業技術

(1) 제7회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専門委員会　合同会議　報告

(2) 中堅・中小企業　技術協力에　대하여(韓国側　提案)

(3) 経済情勢에　対応하는　日本의　産業動向과　展望

3．貿　易

(1) 제9회　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　　会議　報告

(2) 貿易協力

(가) 韓国側　提案(貿易不均衡　是正에　관하여)

(나) 日本側　提案(在韓商社등의　스테이터스, 課税問題에　관하여)

(3) 日本의　対外経済政策에　관하여(日本側　説明)

(4) 海運協力에　관하여

4．其　他

韓国側代表団名簿

（가나다順）

	姓名	団體會社職位	団體／會社名
顧問	申 秉 鉉 SHIN BYONG HYUN	會長	韓國貿易協會
〃	柳 琦 諄 RYU KI JUNG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鄭 寿 昌 CHUNG SOO CHANG	〃	大韓商工會議所
〃	鄭 周 永 CHUNG JU YUNG	〃	全國経済人聯合會
団長	朴 泰 俊 PARK TAE JOON	會長	韓日経済協會
		〃	浦項綜合製鉄㈱
副団長	金 宇 中 KIM WOO CHOONG	副會長	韓日経済協會
		會長	㈱大宇
〃	朴 大 振 PARK TAI CHIN	副會長	韓日経済協會
〃	朴 龍 學 PARK YONG HAK	副會長	韓日経済協會
		會長	㈱大農
〃	李 健 熙 LEE KUN HEE	副會長	韓日経済協會
		副會長	三星物産㈱

	姓名	團體會社職位	團體／會社名
副団長	鄭寅旭 CHUNG IN WOOK	副會長 會長	韓日経済協會 江原産業㈱
〃	趙重勳 CHO CHOONG HOON	副會長 社長	韓日経済協會 ㈱大韓航空
団員	姜聲振 KANG SUNG JIN	社長	三宝證券㈱
〃	姜信浩 KANG SHIN HO	會長	東亜製薬㈱
〃	高熊振 KOH EUNG CHIN	會長	韓國機械工業協同組合聯合會
〃	権達顔 KWON DAL AN	社長	京畿化學工業㈱
〃	金基命 KIM KI MYUNG	理事長	韓國玩具工業協同組合
〃	金東圭 KIM DONG KYU	社長	(株)大宇
〃	金東鉉 KIM DONG HYUN	専務理事	現代綜合商事㈱
〃	金斗河 KIM DOO HA	社長	三華化成㈱
〃	金善根 KIM SUN KEUN	社長	亜細亜綜合金融㈱
〃	金善吉 KIM SUN KIL	銀行長	中小企業銀行
〃	金連珪 KIM YUN KYU	社長	大韓重機工業㈱

	姓名	団體 會社職位	団體／會社名
団長	金鍾錫 KIM JHONG SUK	社長	韓昌纖維工業㈜
〃	金周南 KIM JOO NAM	會長	韓國機械工業振興會
〃	金鎭河 KIM JIN HA	社長	㈜高麗貿易
〃	金昌圭 KIM CHANG KYOO	社長	湖南에틸렌㈜
〃	金炫植 KIM HYUN SHIK	社長	斗山機械㈜
〃	南基棟 NAM KEE DONG	社長	東洋시멘트工業㈜
〃	文樸 MOON BAK	社長	半島商事㈜
〃	閔厚植 MIN HOO SHIK	해태그룹 會長	해태乳業㈜
〃	朴承復 PARK SEUNG BOK	社長	샘표食品工業㈜
〃	朴宗華 PARK JONG HWA	社長	邦林紡績㈜
〃	徐載軾 SURH JAI SHIK	社長	韓國푸라스틱工業㈜
〃	徐廷翰 SUH CHUNG HAN	社長	韓國合金鐵工業㈜
〃	徐柱仁 SUH JOO IN	常務	三星物産㈜東京支店長
〃	薛聖洙 SUL SUNG SOO	副社長	㈜真露
〃	沈遠澤 SHIM WON TAEK	社長	大韓投資金融㈜

	姓名	団體會社職位	団體／會社名
団員	禹容海 WOO YONG HAI	會長	㈱雙龍
〃	劉三錫 YOO SAM SUK	副會長	韓國綜合特殊鋼㈱
〃	柳纘佑 RYU CHAN U	社長	豊山金属工業㈱
〃	李尚秀 LEE SANG SOO	專務理事	韓日経済協會
〃	李奭熙 RHEE SUK HI	會長	새한自動車㈱
〃	李昇柱 LEE SEUNG JOO	會長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聯合會
〃	李洋球 LEE YANG KOO	會長	東洋시멘트工業㈱
〃	李龍鶴 LEE YONG HAK	理事長	韓國電線工業協同組合
〃	李埈鎔 LEE JOON YONG	社長	大林産業㈱
〃	李泰星 LEE TAI SUNG	社長	東洋綜合商事㈱
〃	李喜鍾 LEE HEE CHONG	副社長	㈱金星社
〃	李孝益 LEE HYO ICK	社長	三益楽器製造㈱
〃	張炳賛 CHANG BYUNG CHAN	社長	利川電機㈱
〃	張相泰 CHANG SANG TAI	社長	東國製鋼㈱
〃	朱昌均 CHU CHANG KYUN	社長	日新製鋼㈱

	姓名	団體會社職位	団體／會社名
団員	崔光政 CHOI KWANG JUNG	副會長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崔鍾煥 CHOI CHONG WHAN	會長	三煥企業㈱
〃	韓基璿 HAN KI SUN	專務理事	三星電子工業㈱
〃	韓在烈 HAN JAE YEUL	副會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韓準石 HAN JUN SOK	理事長	韓國生産技術事業団
〃	黃慶老 HWANG KYUNG RO	社長	三陟産業㈱
幹事	姜信培 KANG SHIN BAE	部長	韓日経済協會
〃	申德鉉 SHIN DUK HYUN	部長	韓日経済協會

日本代表団名簿

顧問	永野 NAGANO	重雄 SHIGEO	日韓経済委員会顧問 日本商工会議所会頭
顧問	稲山 INAYAMA	嘉寛 YOSHIHIRO	日韓経済委員会顧問 経済団体連合会会長
顧問	安藤 ANDO	豊祿 TOYOROKU	日韓経済委員会顧問 小野田CEMENT㈱相談役
団長	日高 HIDAKA	輝 TERU	日韓経済委員会委員長 山一証券㈱取締役相談役
副団長	大島 OHSHIMA	健司 KENJI	日韓経済委員会副委員長 小野田CEMENT㈱取締役社長
副団長	五島 GOTO	昇 NOBORU	日韓経済委員会副委員長 東京急行電鉄㈱取締役社長
団員	岩佐 IWASA	凱実 YOSHIZANE	㈱富士銀行顧問

団員	梅田 UMEDA	善司 ZENJI	川崎重工業㈱会長
団員	田中 TANAKA	文雄 FUMIO	王子製紙㈱会長
団員	永田 NAGATA	敬生 TAKAO	日立造船㈱会長
団員	加藤 KATO	五郎 GORO	住友商事㈱相談役
団員	能村 NOHMURA	龍太郎 RYOTARO	太陽工業㈱会長
団員	赤沢 AKAZAWA	璋一 SHOICHI	富士通㈱副会長
団員	馬場 BABA	靖文 YASUFUMI	(社)日本機械工業連合会副会長
団員	阿部 ABE	栄夫 HIDEO	富士電機製造㈱取締役社長
団員	池田 IKEDA	紀久男 KIKUO	日本工営㈱取締役社長
団員	原田 HARADA	鼎 KANAE	新日本製鉄㈱取締役副社長
団員	秋田 AKITA	兼三 KENZO	㈱日本長期信用銀行取締役副頭取
団員	浦川 URAKAWA	清人 KIYOTO	石川島播磨重工業㈱取締役副社長
団員	曽山 SOYAMA	克己 KATSUMI	日本電気㈱取締役副社長

団員	福本 FUKUMOTO	敦郎 ATSURO	丸紅㈱取締役副社長
団員	西村 NISHIMURA	正己 MASAMI	日商岩井㈱取締役副社長
団員	満嶌 MAJIMA	啓二 KEIJI	日綿実業㈱取締役副社長
団員	合田 GODA	茂 SHIGERU	住友重機械工業㈱専務取締役
団員	巽 TATSUMI	啓吾 KEIGO	㈱三和銀行専務取締役
団員	長村 NAGAMURA	登志雄 TOSHIO	㈱東京銀行専務取締役
団員	西川 NISHIKAWA	登 NOBORU	豊田通商㈱専務取締役
団員	京本 KYOMOTO	善治 ZENJI	(社) 日本貿易会専務理事
団員	山口 YAMAGUCHI	英治 HIDEHARU	日韓経済協会専務理事
団員	市川 ICHIKAWA	泰 YASUSHI	三菱重工業㈱常務取締役
団員	荒瀬 ARASE	晃二 KOJI	三井造船㈱常務取締役
団員	北村 KITAMURA	喬 TAKASHI	YANMER DIESEL㈱常務取締役
団員	阿部 ABE	良夫 YOSHIO	三井物産㈱常務取締役

団員	山田 YAMADA	泰三 TAIZO	三菱商事㈱常務取締役
団員	武藤 MUTO	稱一郎 SHOICHIRO	㈱TOMEN(TOYO MENKA KAISHA, LTD)常務取締役
団員	近本 CHIKAMOTO	行一郎 KOICHIRO	兼松江商㈱常務取締役
団員	伊藤 ITO	守男 MORIO	㈱東食常務取締役
団員	釘沢 KUGISAWA	博之 HIROYUKI	川鉄商事㈱常務取締役
団員	黒沢 KUROSAWA	洋 YO	㈱日本興業銀行常務取締役
団員	伊藤 ITO	十四郎 TOSHIRO	東洋ENGINEERING㈱常務取締役
団員	岩井 IWAI	靖 YASUSHI	ORIENT LEASE㈱常務取締役
団員	三上 MIKAMI	良造 RYOZO	(社)日本船主協会常務理事
団員	三好 MIYOSHI	正也 MASAYA	(社)経済団体連合会常務理事
団員	河井 KAWAI	雅 MASASHI	(財)KDD ENGINEERING & CONSULTING常務理事
団員	瀧 TAKI	隆明 TAKAAKI	東京商工会議所常務理事
団員	功力 KUNUGI	喜久男 KIKUO	(社)日本貿易会常務理事

団員	小林 KOBAYASHI	哲郎 TETSURO	伊藤忠商事㈱取締役
団員	室井 MUROI	則泰 NORIYASU	川崎重工業㈱取締役
団員	竹内 TAKEUCHI	宏 HIROSHI	㈱日本長期信用銀行取締役調査部長
団員	山田 YAMADA	勝久 KATSUHISA	山一証券㈱取締役国際本部副本部長
団員	藤木 FUJIKI	和雄 KAZUO	日本輸出入銀行営業第一部長
団員	宇根 UNE	幸男 YUKIO	三菱電機㈱海外事業本部副本部長
団員	和久本 WAKUMOTO	芳彦 YOSHIHIKO	東京芝浦電気㈱国際協力部長
団員	奥田 OKUDA	碩 HIROSHI	TOYOTA自動車販売㈱豪亜部長
団員	殿岡 TONOOKA	脩 OSAMU	大和証券㈱国際部長
団員	田中 TANAKA	正光 MASAMITSU	日綿実業㈱機械第一本部長補佐
団員	田路 TAJI	俊郎 TOSHIRO	日商岩井㈱企画本部長付専門部長兼韓国貿易室長
団員	桜井 SAKURAI	泰 YASUSHI	(社) 経済団体連合会経済協力部長

団員	岩崎 和義 IWASAKI KAZUYOSHI	日本商工会議所海外企業技術斡旋本部副本部長
団員	杉本 道夫 SUGIMOTO MICHIO	大阪商工会議所国際部長
団員	古沢 実 FURUSAWA MINORU	(社)日本貿易会企画部長
団員	織江 良男 ORIE YOSHIO	㈱大和銀行東京国際部部長補佐
団員	山村 慶三 YAMAMURA KEIZO	㈱神戸製鋼所調査部次長
団員	酒井 秀俊 SAKAI HIDETOSHI	森永乳業㈱海外部課長
団員	眞下 仁志 MASKIMO HITOSHI	京都商工会議所国際部主事
幹事	高橋 栄一 TAKAHASHI EIICHI	日韓経済委員会事務局長
幹事	金 学鳳 KIM HAK BONG	日韓経済協会事務局長
幹事	朴 和鉉 PARK HWA HYUN	日韓経済協会事業局長

〈基調演說〉

韓国経済의 現況과 韓·日経済交流에 있어서의 中小企業協力의 方向

中小企業銀行
銀行長 金善吉

韓·日 経済界 代表 여러분!

韓·日 両国間의 새로운 次元의 民間経済協力 増進方案을 摸索하기 위한 이 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 会議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으로 이 民間合同会議는 열네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其間의 本 会議의 成果는 여러 모로 評価될 수 있읍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会議를 통하여 両側의 立場이 점차 명확하게 밝혀지는 한편, 相互 理解를 増進시킴으로써 서로 協力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最近 両国 政府間에 새로운 次元의 協力擴大를 위한 協議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고, 그 妥結을 위한 雰圍気 또한 高潮되고 있는 이 때에, 民間経済界 代表들로 구성된 이 会議가 開催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機會를 빌어 우선 말씀드리건대 現在 兩國政府間에서 誠意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對日政府借款 60億달러 經濟協力問題의 圓滿한 解決은 우리나라 國民의 큰 關心事로서 그 向方을 모든 國民이 注視하고 있읍니다. 日本政府側에서는 韓國의 立場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日本經濟界代表 여러분께서도 積極的인 協調를 하여주셔서 兩國間 協力問題가 圓滿히 妥決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会議에서 저는 먼저 여러분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韓国経済의 現況과 展望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韓·日 経済協力問題를 検討해 보고자 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韓国経済는 1962年 以後 4次에 걸쳐 経済開発計劃을 적극적으로 推進한 결과, 지난 20年間 年平均 8.3%의 높은 経済成長을 이룩하여 量的으로는 実質国民総生産規模가 5倍로 増大되고 質的으로는 中進国 経済圈에 進入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近年에 들어와서는 2次에 걸친 石油波動을 비롯한 国際資源波動, 先進国景気의 低調, 開発途上国間의 競争深化, 保護貿易主義障壁強化 등 国際経済環境의 悪化로 인하여 초래된 景気의 沈滯와 国際収支의 悪化 및 인플레이션 등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対内外 経済與件의 変化에 효과적으로 対応하기 위하여 韓国政府는 持続的 成長을 위한 経済安定基盤의 定着과 能率의 向上을 最優先 目標로 하고, 国際収支의 改善, 比較優位産業構造로의 転換, 그리고 国土의 均衡発展과 社会開発의 擴大를 主要内容으로 하는 第5次 経済社会発展 5個年計劃을 樹立하고, 今年부터 이를 推進하고 있읍니다.

5次計劃은 두가지 面에서 以前의 計劃과 性格이 현저하게 다르다 하겠읍니다. 종래의 4次計劃까지는 高度의 経済成長이 政策의 基調를 이루었읍니다만, 이번의 5次計劃은 安定·能率·均衡의 基調下에 経済安定基盤의 定着, 持続的 成長基盤의 鞏固化, 所得階層間·地域間 均衡発展을 基本目標로 하고 있읍니다. 또한 종래의 開発計劃이 政府主導에 의하여 推進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5次計劃은 政府의 直接介入을 점차 축소시키는 한편, 民間経

濟의 活力을 最大限 動員하여 經濟의 能率을 높이고 産業間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할 수 있도록 民間主導에 의하여 推進될 計劃입니다.

5次計劃에 있어서의 政策基調의 変化와 經濟運用方式의 改善은 經濟體質을 堅実化하고 恒久的 發展基盤을 確保하는 한편, 韓国經濟의 發展段階에 맞게 經濟運用을 内実化하기 위한 것입니다.

5次計劃은 經濟發展 뿐만 아니라 国民福祉의 增進과 階層間의 不均衡 是正을 위하여 社会開発에도 力点을 두고 있읍니다. 所得分配의 改善과 雇傭機会를 擴大해 나가는 한편, 国民의 基本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住宅供給의 增大, 国民保健의 向上, 教育投資의 擴大등에 努力할 것입니다.

両国 經濟界 代表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5次計劃이 推進될 80年代에 있어서 世界의 經濟環境은 不確実性의 增大와 競争의 加熱化로 좀처럼 好転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읍니다.

韓国經濟가 이와 같이 불투명한 国際經濟環境에 슬기롭게 対處하여 持続的인 成長을 이룩해 가기 위하여는 対外協力,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日本과의 經濟協力이 一層 強化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1965年 韓·日間의 国交가 正常化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両国의 經濟協力은 貿易, 資本 및 技術部門에서 꾸준히 推進되어 왔으며, 또한 그것은 両国의 經濟発展과 相互利益의 增進에 寄與해 왔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実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資源 내셔날리즘이 抬頭되면서 世界經濟의 趨勢가 점차 불럭化 또는 地域化되어 가고 있고, 相対国間에 貿易均

衡을 유지하려는 傾向이 濃厚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韓·日間에 원만하고 緊密한 経済協力関係를 持続해 나가기 위하여는 改善되어야 할 課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韓·日間의 貿易不均衡이 是正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問題는 韓国側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機会가 있을 때마다 挙論되어 왔지만 별다른 進展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韓国이 그동안 高度成長을 追求해 오는 過程에서 資本財 등의 輸入을 日本에 크게 依存하여 온 結果로 派生된 対日 貿易逆調는 날로 擴大, 深化되어 両国間의 協力増進이 沮害될 段階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韓国의 対日 貿易赤字는 国交의 正常化 이듬 해인 1966年만 하더라도 2億2千萬달러에 불과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擴大되어 지난 해까지의 累計額이 약 220億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는 韓国経済의 発展을 沮害하는 중대한 要素로 作用하여 왔으며, 더우기 両次에 걸친 石油波動과 最近의 世界的 不況에 따른 韓国의 国際収支 悪化로 対日 貿易赤字의 深化는 더이상 堪当하기 어려운 実情에 있읍니다.

원활한 協力関係가 維持되어야 할 友邦間에 貿易이 이처럼 不均衡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韓国経済의 発展과 両国間 協力의 沮害要因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韓国의 対日 貿易逆調를 改善하기 위한 日本側의 적극적인 努力이 要望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日本은 対韓輸入規制를 大幅 緩和하고 韓国商品의 輸入努力을 強化하는 등 貿易均衡을 이루기 위한 劃期的인 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둘째, 資本協力部門을 살펴보면, 資本協力은 年次的으로 그 規模가 擴大되어 왔다고 하지만, 国交의 正常化 이래 지난 해까지 日

本의 対韓 資本協力規模는 請求権資金을 포함한 公共借款이 13億달러에 불과하고 商業借款을 합하더라도 약 40億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規模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対日 貿易赤字 累計額이 220億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할때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韓国은 5次計劃의 推進을 위하여 80年 不変価格으로 약 1,200億달러 相当의 投資를 計劃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投資財源의 確保를 위하여 国内貯蓄의 劃期的인 増大가 要望되고 있읍니다만, 海外로부터도 相当한 規模의 外資導入이 不可避한 実情에 있읍니다. 5次計劃 期間中의 所要 外資規模는 465億달러로 策定되고 있으며 이중 相当한 部分을 日本으로부터의 良質의 資本協力에 의하여 充当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会議에 参席하신 日本 経済界 代表 여러분들은 새로운 次元에서 良質의 資本協力이 擴大되도록 格別한 協調와 声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技術協力에 대하여도 強調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韓·日間의 技術協力은 꾸준히 伸張되어 왔다고 하겠읍니다만, 앞으로는 量보다 質的인 面에서의 協力増進이 要望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는 技術協力의 件数보다는 韓国産業의 技術集約化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日本의 高級技術이 移転되어 労動生産性의 提高를 통하여 韓国商品의 国際競争力을 強化할 수 있는 方向으로 協力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5次計劃은 80年代에 韓国이 競争力을 維持할 수 있는 繊維, 機械, 電子 및 造船工業의 底辺擴大와 高度化, 그리고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등을 중점적으로 支援할 計劃이므로, 이들 分野에 대한 技術協力의 増進이 크게 要請됩니다.

日本의 이러한 対韓 技術協力이 日本産業에 대한 競争者를 키우는 結果를 招来하리라고 或者는 憂慮할지도 모릅니다만, 그와 같은 생각은 杞憂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韓国이 技術集約的인 産業을 育成하고 既存産業의 技術集約化를 推進할 수 있도록 日本이 先進技術을 韓国에 移転시키고 日本은 尖端的 技術集約的 産業을 開発함으로써 韓·日 両国이 相互補完的인 分業的 産業構造를 確立하는 길만이 相互利益을 増進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以上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協力事項은 経済協力의 새로운 方案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난 여러 해에 걸쳐 많이 論議되어 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経済協力은 어느 한 나라의 利益보다는 両国에 다같이 利益이 되는 것이므로 早速한 時日안에 具體的으로 実現되어야 할 것이라고 強調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会議에서 韓·日民間経済協力의 具體的인 成果를 거두기 위한 한 方案으로서 両国間 中小企業協力의 増進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問題는 이미 지난 13次 合同会議에서 제의되어 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専門委員会의 設置가 推進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3月에는 日本의 中小企業環境視察団이 訪韓하여 韓国의 中小企業이 必要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把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中小企業協力을 위한 環境은 충분히 成熟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委員会의 早速한 構成과 이를 통한 中小企業協力을 始発点으로 하여 多角的인 民間経済協力을 増進해 나갈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韓国의 中小企業은 経済成長의 過程에서 生産과 雇傭 및 輸出등의 面에서 経済成長에 크게 寄與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産業의 開拓, 大企業으로의 成長 등을 통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

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韓国経済의 先進工業構造에의 転換을 위하여는 技術集約的 産業의 育成과 既存産業의 技術集約化 또는 知識集約化가 重要한 手段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産業의 底辺을 構成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技術集約化 또는 知識集約化가 緊要한 것입니다.

韓国政府는 5次計劃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隔差를 縮小하고 均衡있는 発展을 도모하고자 中小企業에 각종 支援을 配慮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長期的이고 綜合的인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 10個年計劃을 樹立中에 있읍니다.

이 計劃의 基本方向은 中小企業을 本格的으로 振興하여 그것을 "活力있는 多数" (Vital Majority)로 만들고, 革新과 進歩의 原動力으로 育成하는 데 있읍니다.

그동안 韓·日 両国의 中小企業間에는 個別企業間의 技術提携와 貿易 등을 통하여 小幅的인 協力関係가 維持되어온 데 不過하며, 公式的이고 組織的인 協力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특히 이번 機会에 注目하여야 할 것은 韓国의 中小企業이 日本産業의 중요한 市場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韓国 中小企業의 底力을 強化시키기 위한 経済協力에 있어서도 積極性을 보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日本이 韓国 中小企業의 発展을 위하여 協力하는 것은 결코 日本의 利益을 阻害하는 것이 아닙니다. 日本의 識者들도 韓国 中小企業의 発展이 日本의 利益과 相衝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韓国의 中小企業이 発展하면 할수록 日本의 市場은 점점 擴大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하는 両国의 協力増進은 両国의 利益을 増進시킬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韓国의 5次計劃이 中小企業의 活力에 많은 것을 期待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中小企業의 技術集約化나 知識集約化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그리고 韓国이 長期的으로 中小企業을 社会와 経済에 있어서의 活力의 源泉으로 育成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韓国으로서는 中小企業의 発展을 위하여 日本의 経済協力을 가장 必要로 하는 時期이며 日本으로서는 民間経済協力을 増大시켜 韓国 中小企業의 発展에 寄與할 수 있는 絶好의 機会라고 생각합니다. 両国間의 民間経済協力이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하여 싹트고 擴大된다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概念은 다시 한번 実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韓·日 両国 代表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経済協力方案은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랜 時日에 걸쳐 많이 論議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저는 韓国의 5次計劃의 初年度에 열리 이 14次 合同会議에 즈음하여 韓·日 両国間의 民間経済協力이 実質的으로 推進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바로 이번 会議에서는 協力의 雰圍気가 무르익은 中小企業部門을 中心으로 하여 좋은 成果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끝으로 韓·日 両国은 地理的 및 歷史的으로나 文化的으로 특수한 関係에 놓여 있으며, 또한 많은 分野에서 相互依存 関係에 놓여있어 両国間의 眞正한 相互協力의 深化야말로 両国의 繁榮과 이 地域의 恒久的인 平和維持에 不可缺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基調演說〉

日本經濟의 現狀과 展望 및 韓日經濟協力의 方向

三井物產株式會社
常務取締役 阿部良夫

日本経済는 제2차 世界大戰후, 加工貿易을 중심으로 크게 伸張되었읍니다. 伸張의 원인으로는 環境이 좋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環境에는 国内와 国外의 両面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国内的으로는 農地改革등에 따른 富의 平準化와 이를 통한 国内市場拡大基盤, 教育普及에 의한 日進月步, 技術進步에 적응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戰後 美国을 中心으로 한 先進国이 때로는 資金으로 때로는 技術的으로 日本을 도와 주었읍니다.

国外要因은 무엇인가. IMF·GATT體制로 自由 無差別 무역이 保証되어 좋은 물건을 適正価格으로 팔면 세계의 사람들이 이를 즐겁게 사주는 體制가 되었던 것입니다. 大型船에 의해 低코스트의 原料수입이 生産코스트다운에 크게 기여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情勢가 바뀌었읍니다. 세계의 景気는 후퇴하였고 가장 곤난한 일은 欧美에 각각 千萬人의 失業者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一說에는 非産油発展途上国의 累積債務는 5,000億달러, 社会主義圈의 것은 1,000億달러라고 말하여 지고 있읍니다.

産油国의 경우도 石油消費国의 省에너지, 代替에너지開発로 原油輸出量이 줄고 価格도 내려 사우디아라비아등 一部를 제외하면 国際収支上의 문제를 안게된 나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세계의 経済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슬럼프플레이션이 되지 않나라고까지 말하고 있읍니다.

세계景氣가 좋지 않으면 日本経済는 설 땅이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日本経済는 지금 새로운 局面을 맞고 있읍니다. 輸出伸張도 鈍化되었으며 経常収支도 한때 말하던 増大경향은 아닙니다.

實質GN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個人消費와 住宅投資(이는 構成費가 6%전후)가 늘지 않고 있으며 産業을 維持発展시켜주는 民間設備投資(構成比 17%쯤)는 올해는 작년의 슬럼프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公共投資(同 약10%)는 現在의 정부 정책으로는 期待할 수 없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実質GNP의 需要項目別 構成比는 年度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다음 日本経際의 展望입니다.

저는 美国·欧洲를 비롯한 세계의 景気가 좋아지지 않으면 日本経済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日本으로서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은 内需의 拡大입니다.

私見입니다만 日本의 財政赤字는 解消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景気 상태로서는 財政再建을 조금 늦추더라도 景気刺戟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物価는 安定되어 81年度(81년 4월～82년 3월)의 消費者物価는 前年度対比 上昇率이 4%전후, 都売物価는 2%를 밑돌 것으로 보여 82年度에도 각각 4%전후, 2%전후로 생각되어 国内需要喚起地盤은 갖추어져 있읍니다.

日本経済는 세계経済의 발전을 돕고 이와 調和해 가는 位置가 아니면 繁栄할 수 없읍니다.

다음 韓日経済協力의 方向에 대해서 저의 意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나라는 歴史的으로 地理的으로 대단히 깊은 関係에 있으며 이것이 韓日経済協力의 基礎가 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日本政府도 물론 이러한 깊은 関係를 바탕으로 韓国의 繁栄을 위해 経済協力을 하고 있읍니다만 政府의 손이 미치지않는 면은 우리들 民間의 손으로 거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民間経済協力의 자세에 대해, 三井物産 생활 40년의 経験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協力案件이 相対国 경제발전에 寄與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案件이 두나라 국민간의 利益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観点에서 지금부터의 民間経済協力 자세를 살펴보면 経済의 底辺強化라는 의미에서

첫째, 各種基幹産業 拡大를 위한 관련部品工場의 育成과

둘째, 中小企業의 育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日本도 戦前은 産業構造의 底辺이 좁아 経済 바탕이 얕았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런대로 産業構造의 體制가 整備된 것은 最近의 일로 이는 欧美등 先進諸国으로부터 積極的으로 資本과 経営手法과 새로운 技術을 導入한 덕택입니다.

저는 商社人이지만, 우리들로서는

資本, 技術移転, 経営手法 面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実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実業에는 마술이 없다는 사실이며 民間協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발을 땅에 굳게 딛는 堅実한 努力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基調演説을 마칩니다.

조용히 들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韓日·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会
経　過　報　告

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 秋　田　兼　三

韓日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으로서 韓日·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를 設置하기 까지의 経緯를 비롯하여 同委員会 合同会議의 경과 및 活動状況을 報告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本 委員會 設置문제는 1977年3月 서울서 열렸던 제9회 民間合同経済委員会 会議에서 韓国側 제안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뒤 1979年4月의 제11회 合同議會 및 1980年3月의 제12회 合同会議에서도 계속 検討되어 작년, 1981年6月 서울서 開催되었던 제13회 合同委員会 会議에서는 그동안 論議된 事項을 集約하여 両側이 韓日·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会 設置에 合意한 것입니다.

이 合意를 바탕으로 하여 韓国側은 韓日経済協会가, 日本側은 日韓経済委員会가 준비작업을 서둘러 韓国側은 작년 11月27日, 日本側은 11月30日 각각 国内委員会를 열어 設置준비를 끝마쳤읍니다.

덧붙여서 両国의 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会의 構成을 말씀드리면,

日本側은 秋田 委員長이하 15명

韓国側은 朴大振 委員長 이하 16명
으로 組織되었읍니다.

當 委員會는 작년 12月 24日 제 1회 合同会議를, 日本側은 本人 秋田이하 15명, 韓国側은 朴委員長이하 9명이 出席한 가운데 東京에서 開催하였읍니다.

이 合同会議에서는 먼저 合同会議 運営要綱을 採択하고 合同会議의 役割을 「長期的 視野에 입각하여 새로운 次元의 両国経済協力을 促進하기 위해 定해진 共通의 테마에 대해 相互 지혜를 모아 研究, 그 結果를 발표하며 또한 이를 具體化 하는 指針을 検討한다」
는 것을 両側出席委員이 確認하였읍니다.

계속하여 「第3国共同開発協力」을 合同会議서 正式으로 검토할 테마로 採択하고

日本側은 이 테마에 대하여 資源開発協力 및 市場開拓協力의 두가지 側面에서 상세한 報告를 하였읍니다.

이어서 다음 네가지 테마에 대한 앞으로 対処方法을 검토하였읍니다. 즉

「韓国 第5次経済社会発展 5個年計劃」에 대한 韓国側의 설명,

「環太平洋経済共同體構成을 위한 協力」에 대해서는 日本側이 説明하였으며

「両国産業의 分業體制의 可能性」 및

「長期大型 技術의 共同開発」에 관하여 韓国側의 推進方法에 대한 提案이 있었읍니다.

제 1회 合同会議는 첫会合이라는 점도 있고 時間的 제약등으로

충분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82年 봄에 次期 合同會議를 열어 이미 採択된 테마인 「第三国共同開発協力」에 대해서는 더욱 具體的인 검토를 하기로 하였으며 「韓国 第5次經済社会発展5個年計劃에 대한 資本·技術協力」 「環太平洋経済共同體構成을 위한 協力」 「両国産業의 分業體制의 可能性」 및 「長期大型技術의 共同開発」등 4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展開, 対処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合意하였읍니다.

그뒤 両側 事務局의 준비에 따라 第2回 合同会議를 지난 3月 2日·3日 이틀동안 서울에서 開催하였읍니다.

이번 第2回 合同会議에서 韓日兩側委員은 서로 진지하고 기탄없는 意見을 솔직히 披露하여 相互理解를 깊게하여 다음과 같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읍니다.

먼저 작년 12月 제1회 合同会議에서 제2회 合同會議의 検討테마로 採択한 「제3국 共同開発協力」에 대해서는 韓国側이 提案한 資源開発協力 추진을 위한 窓口設置에 合意하였으며 이 窓口의 具體化 문제는 双方이 협의하여 조속히 推進시키기로 하였읍니다.

제3국 市場開拓에 관한 韓国側의 協力要請에 대하여서는 日本側이 国際情勢変化에 対応한 協力의 뜻을 밝혔읍니다.

다음 太平洋経済共同體構想…… 종래는 「環太平洋」이라고 環이 붙어 있었읍니다만, 環을 없애는 것이 넓은 意味가 된다는 생각에서 「太平洋経済共同體構想」으로 명칭을 変更하였읍니다.

이 構想에 대해서 日本側은 상세히 説明하였으며 韓国側은 앞으로 계속하여 이 테마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를 検討할 뜻

을 밝혔읍니다.

「両国産業의 分業體制의 可能性」에 대해 韓国側이 主要部品을 中心한 韓日間의 比較優位 研究에 대한 協力을 要請하였으며 日本側은 協力可能性에 대해 前進的인 자세로 검토키로 하였읍니다.

「長期大型技術의 共同開発」에 대해 日本側이 제 1 회 合同会議 때의 韓国側 提案에 대한 見解를 밝혔으며 韓国側은 앞으로 이 内容을 「複合技術의 共同開発」로 할 것을 提案, 다시 複合技術의 共同開発에 대한 説明을 하였고 日本側은 이에 肯定的인 理解를 보였읍니다.

앞으로 推進에서는 「複合技術」의 概念을 明確히 하여 対象테마를 決定하기 위해 双方 2 ~ 3 의 委員協議끝에 具體化 하기로 하였읍니다.

따라서 「長期大型技術의 共同開発」은 第 2 回 合同会議에서 「複合技術의 共同開発」로 바뀌어졌으며 第 13 回 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에서 當 委員會로 넘겨진 長期大型技術의 共同開発이라는 테마는 削除하게 되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當 委員會 合同会議의 豫定을 말씀드리면 次期 合同會議는 年内 東京에서 開催할 方針으로 있읍니다.

次期 合同會議에서는 제 2 회 合同会議서 合意한 「第 3 国共同開発協力推進」에 대한 그뒤의 具體的 進展状況의 報告와 함께 検討테마는 대체로 「太平洋経済共同體構成을 위한 協力」, 「両国産業의 分業體制의 可能性」및 「複合技術의 共同開発推進」에 대한 報告가 이루어질 豫定입니다.

또 状況에 따라서는 「韓国 第 5 次経済社会発展 5 個年計劃에 대

한 資本·技術協力」에 대해 이를 어떻게 展開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檢討하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報告 말씀 드린 바와 같이 本 委員会는 発足한지 数個月밖에 되지 않지만 委員会活動은 착실히 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씀드려도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크高 日韓経済委員会委員長, 朴泰俊 韓日経済委員会委員長은 물론 朴大振 韓日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을 비롯한 韓日兩国委員의 協力의 덕분임을 이자리를 빌어 깊이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不肖 저는 여러분의 協力을 바탕으로 一衣帶水의 韓日兩国의 民間레벨 経済協力 促進에 앞으로도 있는 힘을 다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면서 조용히 들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会設置推進
現　況　報　告

訪韓國中小企業協力環境視察團
團　長　能村龍太郎

이번에 日韓経済協会, 日本商工会議所가 編成한 団員 12명의 訪韓国 中小企業協力環境視察団의 団長으로서 지난 3월 10일부터 13日까지 韓国의 서울市를 訪問하였읍니다.

작년 제 13 회 韓日·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에서 合意를 본 仮称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설치 趣旨를 받든 이번의 視察団은 제 5 차 経済社会発展 5 個年計劃이 始動한 新体制下의 韓国中小企業界 및 앞으로의 韓日中堅·中小企業의 協力環境을 直接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이 目的이였읍니다.

저희들은 사흘동안이라는 짧은 日程이었읍니다만, 団員 여러분의 熱性과 規律있는 行動으로 제한된 時間을 効率的으로 活用, 韓日経済協会 朴会長님을 비롯 韓国中小企業 関係機関, 業界의 여러분을 만나 각 組織과 事業活動을 들었으며 앞으로의 韓日 中堅·中小企業協力 分野에 대해서 意見交換과 工場視察을 하였읍니다.

韓国経済는 最近의 世界経済의 低迷에도 불구하고 回復基調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 새로운 5 個年計劃이 종래의 重工業 중점에서 経済安定基盤의 定着을 目標로 韓国中小企業의 体質強化, 底辺拡大 安定化를 指向하고 国際社会에서의 中小企業의 役割도 더욱 拡大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韓日中堅·中小企業의 協力分野와 交

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視察에서는 이러한 情勢를 바탕으로 韓国中小企業 関係者들로부터 앞으로의 協力分野로서 中堅。中小企業의 合資, 投資, 技術移転, 무역의 促進등 절실한 要請이 있었읍니다.

現在 상세한 報告書를 作成中이나 韓国中小企業의 現況, 協力에의 理解를 위해 関係者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만 視察経過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1。礼訪으로는 韓日経済協会 朴会長, 大韓商工会議所 李常勤副会長, 中小企業振興公団 裵理事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会 韓副会長, 日本国大使館 前田特命全権大使, 同 村岡公使를 각각 礼訪하여 간담하였으며 그밖에 특히 大韓民国 経済企劃院 鄭次官, 同 商工部 琴次官도 만나 간담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2。3월11일, 12일 이들동안 韓国側 中小企業 関係機関의 여러분으로 부터 각각 組織活動의 상황, 中小企業現況, 投資環境등에 대한 자세한 説明을 들었읍니다。 이들 関係機関은 韓日経済協会, 大韓商工会議所, 中小企業振興公団,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会, 中小企業銀行, 韓国生産技術事業団, 韓国金属工業協同組合, 韓国機械工業協同組合聯合会, 韓国染色工業協同組合聯合会의 여러분이었읍니다.

3. 視察団은 이들 機関의 여러분과 中小企業 協力環境에 관하여 진지한 意見交換과 간담을 가졌읍니다.

그 結果, 앞으로 中堅・中小企業에 관한 協力分野로서

(1)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専門委員會의 設置促進

(2) 貿易使節団의 交換

(3) 中小企業間의 合作, 投資促進, 技術移転의 促進

(4) 展示会, 박람회 参加 및 참관 알선

(5) 中小企業関係者의 交流促進

(6) 韓国의 88年 올림픽에 대한 商品·技術提携와 商標등의 共同使用

(7) 기술자의 研修 및 派遣

등에 대한 열렬한 要望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1) 이들 要望事項을 歸國後 可能한 限 幅넓게 日本의 関係者들에게 전달, 関係方面의 理解를 얻도록 努力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오늘 出席하신 여러분들에도 전달, 韓日経済協力의 立場에서 여러분의 넓은 理解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특히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専門委員会의 設置促進要望에 대해서는 이미 合意된 経緯도 있어 우선 우리나라의 中堅·中小企業関係 10機関 이中核이 된 委員會発足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이들 構成機関들은 東京을 비롯하여 主要都市의 商工会議所 및 主要 中小企業 関聯機関에게 中核委員으로서 参加를 부탁드릴 생각으로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 委員會와 韓國側의 카운트·파트너의 委員會와의 會合을 통해 協力委員會의 設置促進 및 両国

의 中堅·中小企業 協力分野에 대한 意見交換과 具体策에 관한 方途를 검토할 豫定이며, 具体的인 운영에 대해서는 첫번째 両国 合同委員會会議에서 협의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議題가 된 韓日·日韓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의 經過報告를 겸해서 「訪韓国 中小企業協力環境視察団」의 經過를 報告드렸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視察団 訪韓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편의와 協力을 하여 주신 韓日經済協会와 関係機関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韓国　第5次経済社会發展5個年計劃　説明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李尙秀

大韓民国政府発行(1981.12)

第5次　経済社会発展5個年計劃　1982～1986에　의거　要約説明.

造 船 関 係 協 力

日立造船 (株)
會長 永田敬生

(要旨)

日本의 造船業界로부터 본 韓国의 業界에 관해 希望을 말하고 싶다.

1969～71年 사이 日本造船工業会 会長을 歷任하며 AWES(欧洲 11個国의 造船聯合会)와 数回에 걸쳐 위원회를 開催했다. 当時 日本의 建造量은 世界市場의 51%를 占하고 있었으며 AWES로부터는 50%以上의 建造는 中止해주었으면 하는 要望이 強했다. 그후 日本의 쉐어가 줄어듬과 함께, 제1차·2차의 오일 쇼크를 거쳐 965萬Gt의 生産能力을 削減 現在 640萬Gt이며 世界市場의 35～40%로 転落했다. 現在, 欧洲의 쉐어는 34～35%, 臺湾, 韓国등 新興造船国이 나머지 $\frac{1}{3}$을 차지하여 世界의 造船市場은 安定되어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貴国이 그 建造量을 九百数十萬Gt으로 增加하는 것은(第5次経済社会発展5個年計劃) 世界市場에 混乱을 招来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실 必要가 있다. 造船業이 労動集約的이며 저변의 波及効果도 넓어 開発途上国에 適合하다고 하는 것은 認定하며, 부메랑効果도 先進国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나, 世界市場의 混乱은 서로 避할 必要가 있다.

또 自由主義経済는 利益이 오르지 않으면 衰退한다. 韓国造船業은 現在 政府의 支援에 의해 発展되어 왔으나 그것이 없어졌

을 때 利益이 줄어들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 日本의 造船界도 一定의 労動力을 포용하고 있으며 先進国도 造船業이 必要하다. 요는 서로 安定된 成長을 하는 것이 必要하다. 서로 得을 보는 것이 韓日両国에 必要하며 그와같은 成果가 오르는 相議를 하면 어떨까. 이는 3月末에 全経聯의 韓日最高経営者会議에서도 提案한 것이나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技術協力 잘 된다는 韓國側發言에 對하여)

造船의 對韓技術協力이 充分치 않은 것은 認定한다. 지금까지는 開発途上国에 대해 行하여져, 韓国은 이미 中進国인 것이 그 理由이지만 韓日間의 特殊한 関係에서 보면 技術協力을 深化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当然하며, 政府間에서 새로운 體制가 確立되면 民間에서도 進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第 7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会
合 同 会 議 経 過 報 告

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浦　川　淸　人

작년 서울서 開催되었던 제 7 회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会 会議와 그 뒤의 経過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읍니다.

同 会議는 작년 6月 12日, 13日 이틀동안 서울서 開催되어 日本側은 浦川淸人 委員長을 비롯 20 명이, 韓国側은 張炳贊委員長 이하 28 명이 참가하여

(1) 韓国 제 5 차 経濟社会発展 5 個年計劃의 機械工業協力에 関하여
(2) TQC協力에 関하여
(3) 그룹別 協力団 派韓에 関하여
(4) 기타

의 議題로 討議하였읍니다.

먼저 제 5 차 5 個年計劃의 機械工業分野의 協力에 관한 討議에 앞서 韓国 商工部의 辛国煥 機械工業局長으로부터 機械工業分野의 5 個年計劃에 대한 説明을 듣고 相互 意見을 交換한 結果, 日本으로부터 資本, 設備 및 技術移転등 적극적인 協力이 必要하다는 것을 再確認 하였읍니다.

「TQC의 協力」에 관해서는 韓国側으로부터 日本 TQC전문가의 韓国派遣과 함께 韓国機械工業 関聯企業으로 구성될 TQC調査団 訪日에 대한 協力要請이 있어 日本側은 적극 協力하기로 하여 日韓経済協会와 協議 推進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問題는 그뒤 両事務局이 협의하여 日本側의 講師派遣에 따른 TQC세미나를 4월 16일 서울서 開催키로 確定하였으며 対日 TQC 미션派遣도 6月中旬 實施를 目標로 準備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다음 韓国側으로부터 昨年 9月 서울서 開催된 韓国機械展示会에 「그룹別 対韓協力団 派遣」의 要請이 있었으며 日本側도 그 必要性을 認定하고 各 業界에 積極的으로 권유할 것을 약속했읍니다。

또 現在 정부베이스로 추진되고 있는 機械工業分野의 対韓調査団 파견에 대해서 日本機械工業聯合会와 함께 本 専門委員会도 早期実施에 積極 協調할 뜻임을 이 자리를 빌어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의 問題로는 日本側으로 부터 '80年 東京 MIPRO 展示館서 열었던 韓国機械展示会의 成果를 높이 評価, 올해도 日本서 開催하도록 要請하였으며 韓国側은 이를 積極的으로 政府와 協議하여 決定키로 하였읍니다。

第6回 会議서 合意했던 「플랜트 輸出協力을 위한 共同채널 形成」 問題는 계속하여 日本機械輸出組合과 韓国機械工業振興会가 協議를 거듭한 결과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第3国 플랜트 輸出推進의 共通問題를 討議하기로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第8回 회의는 5월 19일 부터 사흘동안 伊豆 下田에서 열도록 決定하였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칩니다。

対韓投資調査団에 関한 意見

利川電機㈱
社長 張炳賛

방금 浦川 委員長께서 하신 報告 가운데 韓国에 投資調査団을 派遣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関聯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調査団 派遣의 背景이 昨年 9月에 있었던 韓日閣僚会談時에 両国政府의 通商当局者間에 合意되어 派遣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機会에 이 問題는 韓日・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에서도 積極 協助할 것을 決議하여 주시기를 提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投資調査団의 派遣問題는 民間 次元에서 主導的으로 推進하며 따라서 投資調査団이 韓国에 갔을 때에는 具体的으로 実務的인 投資商談이 이루어지도록 推進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投資調査 및 活動範囲는 1次的으로 部品工業을 위시한 機械類를 中心으로 하되, 앞으로 実務接触을 通하여 그 範囲와 派遣回数 등을 協議하여 拡大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第1次의 調査団 派遣時期는 今年 6月中에는 実現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半에 해당하는 実質的인 始作을 期待하면서

韓國生産技術事業團
理事長 韓 準 石

지금 여기에 韓日両国의 財界重鎭들이 모이셔서 両国間의 보다 有益하고 実質的이며, 効果的인 経済協力関係를 論議하려고 하시는 자리에서 그 協力의 가장 実質的인 対象으로 挙論되어 온 技術移転。技術協力에 関하여 저의 拙見의 一段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없는 栄光으로 생각합니다。

日本은 明治維新後 110餘年이 経過한 이제, 西欧의 科学技術을 吸収, 消化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独自的으로 発展시켜 새로운 領域을 開拓해 나가고 있는 世界尖端의 工業国으로까지 成長하였읍니다。

日本을 先頭로 하는 極東의 発展은 世界의 関心의 焦点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潜在해 오던 東洋文化의 底力과 西洋科学技術이 接木되어 영글기 始作한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日本屈指의 大企業 最高経営人 여러분은 그와 같이 世界의 最尖端에 서게 된 日本代表企業의 責任者이실 뿐 아니라 同時에 技術的으로도 世界의 技術革新의 리-더라는 重要한 責務도 맡고 계십니다。

韓日両国은 有史以来 地理的인 近接性으로 하여 文化文明의 交流가 어느 다른 나라와의 사이 보다도 密接하고 따라서 数많은 点에 있어서 그 文化文明이 共通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西洋文明-그 以前에는 東洋人에게는 関心밖이었던 世界, 다른 天下의 文明-即 物質을 生産하는 無限한 能力을 吸収하기 始作한 時期의 差는 日本과 韓国의 科学技術 및 工業力의 格差를 좀처럼 좁힐 수가 없게 만들고 말았읍니다。 両国이 모두 儒敎의 영향으로 하여 進学率이 어느 다른 나라보다 유별나게 높다는 共通点이 있읍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両国의 技術水準格差를 쉬이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学校에서 가르치는 先生의 레벨이 같게 되지 않는 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韓国의 技術이나 技術以前의 科学이 안고 있는 相対的인 落後性의 根本的 原因이 解放 当時 大学, 専門学校。高等学校가 형태는 남아 있었으나 学校水準과 内容에 相応한 資格과 経験 있는 훌륭한 先生이 不足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解放과 더불어 日本사람이 물러간 뒤의 空白, 即 学校에서의 生産技術을 가르칠 先生의 空白, 工場에서의 管理能力者。生産技術者의 空白, 技術政策을 立案運用할 技術官僚의 空白등의 打撃이 우리 스스로가 짐작할 수 없을이만치 컸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萬若 돌아간 日本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先生에 의하여 그 空白을 메울 수 있었더라면 우리들이 바랐던 일。即 日本에 따라 가는 일도 可能하였을 것이고 또 우리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일입니다마는 만약 그럴 수만 있었더라면 日本사람에게 우리들의 힘으로 즉 自主的으로 훌륭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所願도 풀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人間의 生存과 生活의 条件이기도 하고, 한 民族의 繁栄의 바탕이 되는 資源이 社会存立에 不可欠한 것이라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러나 歷史的으로 人間이 生存하여 온 곳이라면 基本的 資

源, 即 生存에 必要한만큼의 一応의 資源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社会를 보다 좋게 만드는 基本要素는 賦存되어 온 資源 그 自體가 아니라 보다 人間的인 것, 보다 社会的인 것, 即 그 社会 構成員의 사람됨됨, 다시 말해서 사람의 資質 또는 사람이 받은 教育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後進国에서 経済成長이 뜻대로 안되는 理由가 資本이 없다, 좋은 機械가 없다 등등에 있는 것같이 이야기합니다마는 資本이 있기 전에, 좋은 機械가 있기 전에 그 資本을 보다 有効하게 쓸 計劃을 세우고 그 計劃을 執行할 有能한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하며, 또 좋은 機械가 있기 前에 어떤 것이 좋은 機械냐를 選別·判定할 수 있는 사람과 그 機械를 보다 効率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韓国은 技術과 関聯하여서만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제 生産現場에서 経験이 있는 同時에 理論도 兼備한 各級学校에서의 훌륭한 先生과 우리 企業의 生産能力과 特長을 잘 把握하고 그 바탕 위에 国際競争力이 있을만한 製品을 찾아내고, 그 製品을 만들 工場을 設計企劃하고, 建設管理하며 또 그 生産을 담당하고 그 生産을 管理할 수 있는 諸般의 많은 技術者가 必要하며, 또한 解放以後 日本에서 推進된 것과 마찬가지로 世界에서 가장 앞선 技術을 選別할 줄 알고 그 選別한 앞선 技術이 定着, 成長할 수 있도록 集中的으로 支援 発展시켜 가는 政策을 세우는 技術官僚들, 이와같은 사람들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日本은 1950年 前後부터 外換管理法이나 技術導入法에 依하여 우선 各製品 分野에서 世界의 으뜸가는 技術을 入手하도록 勧奨하고, 그 入手해 온 사람이 웬만한 能力만 있으면 그 技術이 뿌리를 내리고 発展할 수 있도록 外貨나 国内外 金融面

등에 있어서 特別한 支援을 継続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技術이 外国과 같거나 더 앞선 水準까지 끌어 올려질 수 있는 企業을 発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背景에는 各工場에서 実質的인 生産力이 무엇에 의하여 左右되며。어떻게 해야 競争力이 생기겠느냐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韓国이 지금 바로 必要로 하는 것이 即, 이와 같은 各方面에 있어서의 数많은 技術者들 입니다。

우리들이 外国。特히 日本에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技術이 外国의 水準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데 必要한 그와 같이 많은 技術者를 指導하여 주실 훌륭한 先生님들 입니다。

「사람만들기」란 어쩌면 國家的 事業의 全部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그 큰 스케일의 「技術者 만들기」計劃을 論하기 앞서 우선 그 一部, 그러나 生産力増強에는 가장 密接하고 直接的인 生産現場의 技術을 당장 向上시킬 수 있는 훌륭한 先生을 여러분의 協力에 의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모셔오게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가 創設된지 13年이 되고。韓国側의 韓日経済協会가 1年이 되었읍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会員各位間의 個人的 親睦과 理解가 敦篤히 되어가고。또한 그 論議하시는 内容이 具體化되어 가고 있다는 事実은 대단히 慶賀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実質的인 것이 始作되지 아니 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더 재촉이 必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긴 時間을 들여서 크고 基本的인 問題를 解決한다는 것은 가장 重

要한 일임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적으나 実践할 수 있고 実質的이고 効果的인 일을 始作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両者択一할 일이 아니라 둘다 同時에 推進하여야 할 緊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俗談에 "始作이 半"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委員会의 創設 그 自體가 半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長期的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는 그 設立 自體만 갖고도 半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技術問題는 最近의 日進月歩하는 그 非常한 템포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 事情의 緊迫性에 비추어 볼 때 委員会의 設立만으로 半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未洽한 感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付託을 드리는 同時에 提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모임에 参加하지 않은 会員 以外의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더라도 우선 이 協力의 모임의 뜻에 賛同하시고 여기에 参与하신 会員社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判断으로 韓国이 꼭 必要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重要한 技術部門에 여러분 会社에서 그 方面에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씩 韓国에 派遣해 주십사, 한달에 1週日씩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派遣해 주셔서 한 工場, 두 工場이라도 좋으니까 韓国의 必要한 工場에서 애타게 바라고 있는 知識 或은 管理方式을 가르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걸음 나아가서는 우리가 必要로 하는 技術習得을 위한 日本에서의 現場教育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国際的 Know-How에 属하는 그런 技術分野가 아니라 先進国間에는 이미 確立된 技術分野에서 우리의 研修生을 세사람씩이고, 다섯사람씩이고, 열사람씩이고 여러분의 形便에 따라서 費用은 이쪽에서 負担하겠으니 訓練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이야기입

니다。

또 그 다음 段階로는 両国間의 一般的인, 特히 経済協力의 必要性에 対한 서로의 認識이 깊어 감에 따라 그러한 理解와 雰囲気의 造成을 基礎로 하여 다음 世代의 技術의 共有를 겨냥한 共同研究라든가, 또 그 위에 그러한 技術을 開発할 能力과 利用할 수 있는 System을 담당할 各 Level의 科学技術者의 養成이라고 하는, 참으로 未来를 向한 Dynamic한 協力과 協力関係가 成立되도록 努力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生日잔치 잘 먹으려고 내내 굶을 수는 없듯이 지금 당장의 問題, 即 現在의 生産設備와 人力을 가지고 할 수 있는 最適製品, 最高 生産性 発揮를 위한 諸措置가 Oil Crisis와 지난 2, 3年의 政治的 動揺등으로 단 한번의 失敗조차 容納될 수 없을이만큼 切迫한 것이 되고 있읍니다。 日本内에는 흔히들 "日本의 競争相対国을 도와 줄 수 없지 않느냐"고 하여 韓国에 対한 技術支援 活動을 批判내지 忌避하는 意見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協力拒絶에 理由있다"고 쉽게 매듭을 지으려는 心理的 虚像이지 実像은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主観的인 安易한 理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現在의 韓国은 그러한 두려운 存在가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 5, 60年内에는 日本의 蓄積된 文化나 技術, 그리고 富에 対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日本의 一億의 人口가 오늘의 成長을 지탱하여 준 重要한 要因이라고 하는 뜻은, 만약에 그 人口가 5千萬이었다고 한다면 그 成長이 現実보다 뒤졌으리라는 것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人口의 無限大의 増加가 文化·経済의 発展에 加速化 要因이 된

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EC의 例를 보더라도 一衣帶水에 관계 있는 4千萬정도의 人口가 같은 經濟圈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利益은 그것으로 因한 마이너스의 効果보다 훨씬 클 것임이 틀림없읍니다.

유럽에서는 EC가 成立되지만 極東에서는 經濟共同體가 果然 成立可能할까요? 그런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現在의 韓日間의 隔差는 日本과 韓国과 비슷한 水準에 있는 다른나라 사이의 隔差보다는 서로의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文化의 類似性과 地理的 近接性으로 因하여 어떤 意味에서는 豫期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縮小되어 갈 可能性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韓国의 技術의 落後, 生産技術뿐 아니라 生産管理技術의 落後를 되도록이면 빨리 工業化된 다른나라의 水準에 따라가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韓国生産技術事業団이 政府에 依하여 1年前에 設立되었읍니다.

그 主된 任務는 機械工業과 輸出産業에 있어서 現在의 製品生産에 關한 生産技術 및 生産管理技術을 外國의 一流專門家의 도움으로 各企業의 生産現場에서 指導·向上시키며 稼動率이 낮거나 또는 市場展望이 좋지 않는 製品을 生産하고 있는 경우에는 市場展望이 좋은 製品을 外國專門家의 도움으로 發見하고 그 製品技術까지도 支援하는, 다시 말하면 技術을 中心으로 하는 企業의 經營改善 綜合支援機關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지난 1年間 外国專門家를 초빙하여 事業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소위 技術의 伝授 그 自體만이 아니라, 思考와 生活의 改革을 啓蒙·리-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작은 것을 所重히 하는 習性을 몸에 배게하는 改革, 다시 말하면 먼지나 녹이나 기타 적은 差를 所重히 해야된다는

생각과 行動이 定着되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所重히 하는 것이 Micro의 世界에 도전하는 基礎이며 Micro의 世界에 도전할 수 있어야만 Macro, 即 國家, 国民全體의 經済発展도 可能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每日 工夫하고 記録하는 것의 生活化입니다。 우리가 儒教의 영향으로 工夫自體가 人生의 目標이자 人間의 人間되는 基本이라고 생각해 왔음에도 不拘하고 日本과는 달리 어떤 契機에서인지는 모르나 活字를 가까이 하는 習性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는 것이 実情입니다。

그러나 現在와 같이 技術이 많이 뒤져 있는 경우에 그 나아갈 方向을 바로잡고 또한 지금과 같은 情報公害時代에 있어서의 情報選別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先生없이는 무작정한 工夫가 방황의 연속으로 끝날 可能性이 없지 않기 때문에 論理的으로나 現実的으로나 우리가 解放後 여지껏 메우지 못하고 있는 生産技術。生産管理技術面에 있어서 훌륭한 外国先生의 引導。指導가 不可欠하다는 結論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意味에서 비뚤어진 내셔널리즘의 是正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은 認識下에 生産現場에서 이 두 改革을 함께 外国一流専門家의 指導로 스스로 깨우치고。그 두 改革과 技術이 몸에 밸 때까지 反復하는 것을 옆에서 支援해 주는 것이 우리의 任務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理由로 저는 작은 것을 대단히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것은 저의 지금의 일과 관련이 있는 편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両国間의 協力에 있어서도 작으나 実践可能하고, 實質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出発이야말로 대단히 重要한 것이며, 또한 참된 結実을 낳을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

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日本에서。美国에서。英国에서。独逸 또는 欧羅巴 다른 나라에서 経験이 풍부한 많은 技術者들이 韓国에 와서 企業現場에서 指導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中에는 最近 우리 韓国을 다녀간 世界工作機械技術의 最高権威라고 하는 美国 Cincinnati Milacron의 M•Eugene Merchant博士，金属表面処理의 世界的権威인 英国의 Plaster氏。그리고 金属成形技術에 아주 強한 独逸 Darmstadt工大의 Schmöckel教授등이 있으며，日本에서 처음오신 技術者는 金属鍍金의 権威者이신 坂田勇治었고。그 後 많은 Consultant뿐 아니라 三井精機，日立，三菱電気와 中小企業의 現役의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계속 指導를 담당해 주시고 있고 또 川崎重工業등 여러 大会社에서 대단한 協力의 뜻을 表明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無限한 技術支援 需要에 比하여 우리 事業団이 企業에 주고 있는 支援의 量은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가령 豫算이 있더라도 풍부한 経験과 最新의 情報를 아는，참으로 一流의 専門家를 찾고 招請하기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付託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会社에서 各各 한 사람씩 이런 훌륭한 一流技術者를 보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一流技術者가 그 技術을 必要로 하는 韓国의 生産現場에서 教育을 始作하는 그것이 바로 両国間의 진정한 技術協力의 始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始作이야말로 우리나라 俗談에 있는 "始作이 半"이라는 그런 뜻의 始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判断，

選定하여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더 具體的으로 저희 事業団이 여러분 会社에게 각각 要請을 하는 節次를 通해서 결정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여러분 会社에서 한 사람씩 今年內로 되도록 빨리 訪韓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실 것을 저는 여기서 提案하고자 합니다。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結実을 土台로 両国間의 技術協力과 技術協力을 通한 友好関係가 前例없이 빨리 增進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餘談같습니다만 제가 技術協力과 関聯하여 아주 큰 感銘을 받은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事業団이 発足하기 以前입니다마는 一団의 美国生産技術者들이 지난 1978年 訪韓하였을 때。 지금도 記憶에 생생한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韓国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앞선 技術을 보인다거나 자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美国사람이 얼마나 正直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왔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NO」했을 때는 정말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남김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한 이야기를 한달 후 귀국할 時点에서 여러분이 아시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全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美国 사람들이나 또는 日本사람들에게 되풀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正直한 先生이라 하겠읍니다。

또 이와 비슷한 뜻으로 한 日本엔지니어가 「아는 것은 모름지기 다 가르쳐 줘야 엔지니어이다。 오늘 다 가르쳐 주면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毎日 工夫하지 않는다면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깊이 吟味하고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도록 努力해야 할 道德的인 要請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事業団에서 招請해 오는 各国 엔지니어들은 저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正直한 엔지니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각 한 사람씩 보내주실 그 技術者들도 모두 이와같은 正直한 技術者임에 틀림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経験이나마 이 엔지니어의 正直性은 技術移転에 있어서 그 技術者가 가진 知識못지 않게 主要한 要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本人이 오늘 여기에 提案한 것은 日本側 委員 여러분께서도 찬성하시고 積極 呼応해 주시리라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같으나 実質的이고 結実이 있는 出発에 대하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全幅的으로 찬성하여 実践에 옮겨 주심으로써 진정한 半에 該当하는 始作이 이번 機会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懇切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最近의 経済情勢에 対応하는 日本의 産業動向

経済団体連合会
常務理事 三好正也

Ⅰ. 第1次 石油危機 뒤의 産業構造 変化와 産業調整

1. 2回의 石油危機로 世界経済는 큰 打撃을 받았으며 特히 日本의 경우 에너지 需要의 9할 가까이를 海外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7할은 輸入石油에 依存하는 취약한 에너지 供給構造이기 때문에 石油危機의 영향은 대단히 컸었읍니다.

   1973年부터 1980年의 7年동안 石油코스트는 8倍로 되었고 電力코스트도 石油火力의 비중이 높아 4倍로 되었읍니다.

   이러한 에너지 코스트의 騰貴와 함께 世界経済의 停滞로 日本의 経済成長率은, 第1次 石油危機 以前의 10年間은 平均 10%였던데 대해 第1次 石油危機 以後는 5% 前後에로 半減되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産業界는 省에너지, 代替에너지의 導入, 減量経営, 製品의 高度化등을 진지하게 推進하여 왔읍니다.

2. 이동안 日本의 産業構造도 크게 変化하였읍니다. 自動車, 엘렉트로닉스등 組立加工産業은 比較的 훌륭히 石油危機를 극복하여 生産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에 比해 알루미늄, 石油化学等의 素材産業은 에너지 코스

트의 昂騰과 需要停滯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低迷한 狀態에 있었읍니다. 이를 数字로 보면, 日本製造産業에서 차지하는 組立加工産業의 쉐어는 1970年의 34%에서 1980年은 36%로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素材産業의 쉐어는 같은 期間에 38%에서 35%로 줄어들어 両者의 比重은 逆転된 것입니다.

3. 이러한 組立加工産業의 代表的인 事例로서 自動車가 있읍니다.

日本의 自動車 生産은 1973年의 700萬台에서 1980年에는 1,100萬台로 늘어나 世界 小型車 需要의 3割을 供給하기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는 日本 自動車産業이 世界를 앞질러 低燃費의 小型車 開発에 힘을 기울인 結果이지만, 그 背景에는 底辺이 넓은 下請業界와 強力한 国際競争力을 갖고 있는 鐵鋼業界가 自動車메이커의 어려운 要求를 들어줄 수 있었던 事情이 있읍니다.

4. 엘렉트로닉스의 生産額도 1973年부터 1980年 사이에 2倍가까이 늘어났읍니다. 日本의 엘렉트로닉스産業은 1960年代 以後 우수한 生産技術과 적극적인 製品開発에 따라 家電部門을 中心으로 계속적으로 新規製品을 市場에 내어놓고 있으며 最近에는 IC, 컴퓨터의 生産이 急增하고 있읍니다.

이 分野는 世界的으로 技術의 進歩가 빨라 日本으로서도 한층 더 技術開発에 힘을 기울여 国際競争力을 強化해 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組立加工産業 가운데서도 造船은 例外가 되고 있읍니다. 日本의 造船業은 1970年에는 全世界 建造量의 50%

를 차지하기까지 成長하였읍니다만, 第1次 石油危機에 따른 世界的인 石油消費量의 停滯로 受注量이 激減하여 오히려 構造的인 不況에 빠졌읍니다.

이 때문에 造船業界는 뒤에 말씀드리게 될 特安法의 指定을 받아 1979年度까지 大메이커는 40%, 中小메이커는 30%의 設備를 休廢止하게 되었읍니다.

造船業界는 構造不況 가운데서 設備폐기의 実施, 労使協調에 의한 철저한 合理化의 推進과 함께 축적된 技術力을 발판으로 経営의 多角化에 힘을 기울였읍니다.

이러한 業界의 努力과 需要回復에 따라 最近 日本 造船業界의 기반은 安定되고 있읍니다.

6. 組立加工産業이 一般的으로 순조롭게 発展되고 있는데 比해 素材産業, 특히 에너지 多消費型의 素材産業의 大部分은 두번째 石油危機에 따른 에너지 코스트의 高騰을 吸收할 수 없어 最近 급격히 国際競争力을 잃어버리게 되어 대단히 苦境에 부닥히고 있읍니다.

7. 알루미늄은 代表的인 例가 되겠읍니다.

電力코스트의 昂騰으로 값이 싼 輸入品에 밀려 生産能力은 피크때의 160萬屯에서 1979年에는 110萬屯으로 떨어졌고 더욱 来年까지는 70萬屯까지 縮小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이동안 輸入은 急增을 계속, 1977年의 40萬屯에서 작년은 100萬屯으로 急增했읍니다. 日本政府는 製錬業이 輸入하는 地金의 一部를 免稅함으로써 製錬業의 코스트負担을 줄이도록 결정했으나, 그럼에도 70萬屯 體制維持는 어렵다고 보는 견

해가 많은 実情입니다.

때문에 알루미늄業界는 값싼 電力을 찾아 오스트렐리아, 인도네시아등으로 生産의 拠点을 옮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石油化学, 페로아로이, 소다, 카바이드등의 業界도 같은 状況에 처해있어 이러한 構造不況에 어떻게 対応할 것인가가 日本 産業政策에 있어서 앞으로의 課題가 되고 있읍니다.

Ⅱ. 特安法의 概要

1. 特安法(特定不況産業安定臨時措置法)은 構造不況対策을 法制面에서 支援하기 위해 5年間의 時限立法으로 1978年7月에 施行되었읍니다. (1983年6月까지)

그 内容을 紹介하면 먼저 業界의 申告를 바탕으로 特定不況産業이 指定됩니다.

指定이 결정되면 所管大臣은 過剰設備의 処理等을 包含시킨 安定基本計劃을 作成합니다. 이 基本計劃에 따라 各事業者가 自主的으로 設備廃棄를 하며, 이에 의해서도 基本計劃이 実現되지 않을 경우, 主務大臣의 指示카스텔의 発動이 可能합니다.

이 카르텔은 独禁法의 適用에서 除外됩니다. 또 設備廃棄에 必要한 資金의 借人에 있어서는 特定不況産業 信用基金을 設置, 이 基金이 債務保証을 하게 합니다.

現在 特定不況産業으로 平電炉, 알루미늄, 製錬, 合繊, 造船, 肥料, 紡績, 페로아로이 (페로시리콘), 板紙 (카톤상자原紙) 등 各業界가 指定되어 있읍니다.

2. 이 法律의 目的은 過剰設備를 원활하게 処理하는데 있으며 過剰設備에 이르기까지의 基本的인 要因이 이 法律에 의해 除

去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過剩設備의 処理에 있어서도 前提가 되는 安定化基本計劃은 業界의 3分의 2 以上의 同意가 없으면 作成할 수 없으며 또 아웃사이더의 規制도 不可能한 것입니다.

또 基金에 의한 債務保証에 있어서도 必要한 借入額 가운데 3分의 2는 民間의 金融機関이나 関係事業者가 保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過剩設備処理에 있어서도 業者自身의 努力이 基本的으로 要請되고 있어 特安法은 이를 側面에서 支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構造不況産業에 根本的인 対策이 별도로 必要하지만 이것도 自由経済體制下에서는 企業의 自助努力이 없는 限, 効果的인 対策이 될 수 없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造船業界의 회복도 基本的으로는 各業界의 自助努力에 의한 것입니다.

Ⅲ. 課題와 展望

1. 低成長下에서의 産業調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日本의 素材産業은 심각한 苦境에 처해 있으며 이에의 対応이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읍니다. 高度成長期라고 한다면 総需要가 拡大되는 가운데 이들 産業도 다른 分野에로의 進出이 원활한 調整이 이루어지겠읍니다만 低成長期를 맞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것도 대단한 困難이 따릅니다.

当該産業에서는 省에너지, 集約化等 더 한층의 自助努力이 要求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自助努力은 에너지税制, 独禁法等의 制度的인 要因에 의해 沮害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러한 阻害要因을 除去, 是正해야 할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特安法은 来年 6月 期限이 끝나게 되지만, 이를 어떤 形態로 延長할 것인가도 앞으로의 検討課題가 되고 있읍니다.

2. 貿易摩擦

資源이 不足한 日本은 앞으로도 貿易立国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先進諸国과의 무역마찰의 解消가 커다란 課題인 것입니다.

日本뿐 아니라 世界経済가 앞으로 発展해 가기 위해서는 貿易摩擦을 自由貿易制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를 実現해 가기 위해서는 첫째 各国 産業을 活性化시키는 것이 基本이며, 日本으로서도 産業協力, 合作事業의 推進등으로 可能한 限의 支援을 할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또 素材産業이 原料資源이나 값싼 에너지 코스트를 찾아 海外의 새로운 立地를 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입니다.

두번째 日本国内에 있어서도 流通機構合理化의 推進등 계속 市場開放에 注力해야 할 것입니다.

3. 中進国의 추격

労動集約的인 製品을 中心한 中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対応하여 海外에 移譲할 것은 移譲한다는 立場에서 우리나라의 貿易, 産業構造를 바꾸어 갈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4. 技術開発의 推進

마지막으로 日本経済는 低成長 時代에 들어섰으나 住宅, 社会資本等 뒤처진 分野도 있으며 이를 整備해 가기 위해서는 어느程度의 成長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대한 열쇠는 技術開発에 있읍니다.

代替에너지의 開発, 情報化社会의 促進等 技術開発이 要求되고 있는 分野도 많아 日本의 産業界는 이러한 面에서 더한층 努力해야 되는 것입니다.

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9回)
経 過 報 告

韓日貿易拡大均衡委員会
委員長 桂 鳳 赫
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
委員長 京 本 善 治

第9回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会議 및 그간의 活動에 関해 報告 드리겠읍니다.

第9回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会議는 昨年 10月28日 부터 30日까지의 3日間 日本(神戸市)에서 開催되었읍니다. 同 会議에는 日本側에서 京本善治委員長外 16名이, 韓国側은 桂鳳赫委員長外 15名이 参席, 우선 雙方의 貿易·経済에 関한 一般報告가 있은다음, (1) 貿易環境의 改善 (2) 韓日貿易의 増進 (3) 기타 問題等 3개議題를 中心으로 真摯하게 協議했읍니다.

우선 (1) 貿易環境의 改善에 対해서는 韓国側은 対日貿易逆調의 早期是正의 観点에서 日本의 特恵関税制度의 拡充, 非関税障壁의 緩和 및 撤廃, 技術提携条件의 改善을 日本側에 要請했읍니다.

이에 対해 日本側은 現状을 説明하는 한편 계속하여 日本政府当局에 韓国側의 要望을 伝할 것을 約束하고, 技術提携条件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改善무드造成을 위해 協力해가기로 했읍니다.

또한 日本側은 昨年 7月 駐韓外国商社의 都売業活動을 認定한 韓国의 貿易去来法施行令 改正内容의 説明을 韓国側에 要請하는 동시, 同 施行令의 弾力的 運用과 貿易業 許可業種의 拡充 및 오파等에 対한 認定課税의 合理的 改善에 대한 協力을 要請했읍니다.

이에 対하여 韓国側은 同 施行令의 改正内容에 대해 具體的으로 説明하고, 日本側 要望事項을 政府当局에 伝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어, (2)韓日貿易의 増進에 関聯, 韓国側으로부터 電子産業 分野를 中心으로한 技術移転의 促進, 日本의 緊急輸入対策에 있어서의 韓国産品에 대한 配慮, 駐韓日本商社의 加一層의 対日輸出協力에 대한 要望이 있었읍니다.

이들 要望에 대하여 日本側은 각기 日本의 現況을 説明하는 同時, 韓国側要望에 대하여 理解를 表示하고 緊急輸入対策에 대하여는 日本政府当局 및 「製品輸入対策会議」에 伝達, 또한 韓国의 対日輸出増進에 대해서는 日本商社와 今後 一層 協力해 갈 것을 約束했읍니다.

(3) 기타 問題에서는 韓国側으로부터 駐日韓国商社駐在員 滞在許可의 更新節次가 엄격하다는 指摘이 있었읍니다.

本 件에 대해서는 日本側으로서도 韓国側 指摘이 事実이라면, 相互主義의 原則上 소망스럽지 못하므로 早速히 関係当局에 이의 改善策을 要望하기로 約束하였읍니다.

한편, 本 委員会会議의 앞으로의 運営에 대해 協議했읍니다만, 雙方은 本 会議의 役割을 再認識하고, 今後 同 委員会를 加一層 活性化 해가기로 合意하여 第9回会議를 마쳤읍니다.

그후에, 第9回会議에서의 協議한 바에 따라, 韓国側은 昨年 11月 貿易去来法施行令에 関한 資料를 日本側에 提供했으며, 日本側要望을 関係当局에 伝達했읍니다.

또한 日本側도 昨年 11月, 韓国側 要望事項에 대하여 日本政府当局 및 関係機関에 説明하는 同時, 別途의 書面提出을 通하여 그 実現策을 要望했읍니다.

日本側은 또한 同 会議의 協議内容을 駐韓日本人商工会에도 報

告하고, 韓国의 輸出増進에의 加一層의 協力을 要請했읍니다。

그런데, 1979年11月 開催된 第7回会議以来 韓国側에서 日本의 非関税障壁의 하나로 指摘했던 電気用品型式認可手続等의 簡素化問題에 대해서는 日本側으로서도 昨年 2月에 그 改善을 書面으로써 政府当局에 要請한 바 있읍니다만, 最近에 発表된 「輸入検査節次等의 改善(67項目)」 措置(1982.1)에서 実行되게 되어, 型式認可申請書類의 簡素化 및 海外試験機関의 試験데이터의 活用制度가 整備되게 되었읍니다。

끝으로 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 雙方은 両国間 貿易의 環境改善과 不均衡의 縮小를 위하여 앞으로 一層 努力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報告를 끝마치겠읍니다。

韓日間의 貿易逆調現況과 是正提議

(株) 高麗貿易
社長 金鎭河

오늘의 世界經濟는 停滯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保護主義의 抬頭와 甚한 貿易摩擦로 自由世界의 經濟發展에 어두운 面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時期일수록 韓日間의 經濟協力의 必要性은 어느 때보다도 高潮된다고 보겠으며 兩國間의 貿易去來量이 해마다 增加되어온 것은 多幸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韓國經濟의 急速的인 成長에 따라 対日輸入依存幅이 해마다 커져 甚한 貿易逆調現象을 보이고 있읍니다.

即 1970年에는 5億弗臺였던 対日貿易赤字가 1979年에는 33億弗로 늘어나고 1981年에도 若干 줄기는 했으나 29億弗을 示顯하고 있읍니다.

이를 다시 國交正常化 後인 1966年부터 1981年까지 累計額으로 보면 220億弗로써 昨年度의 우리나라 輸出總額인 210億弗을 上廻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対日貿易逆調問題는 그동안 여러 차례 論議되어 解決을 위한 努力을 해오고 있으나 赤字幅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深刻한 問題로 抬頭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兩國間의 擴大的인 貿易均衡을 위하여,

첫째로, 日本의 特惠關稅制度의 實效性있는 運用.

둘째로, 非關稅輸入規制의 緩和등 各種制度의 運用改善과,

세째로, 日本商社등의 対韓輸入促進

네째로, 日本의 各地域別 購買使節團派韓등의 問題를 들어 日本側의 協調를 要請하고자 합니다.

(1) 特惠關稅制度의 實効性있는 運用에 關하여.

日本의 特惠關稅運營改善問題는 그간 자주 擧論해 왔으나 아직까지 滿足스러운 것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첫째로 特惠關稅適用 輸入限度를 現在의 日本總輸入額의 約 3.5% 水準에서 最小限 10%水準까지 擴大하여 輸入을 促進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981年 4月 1日부터 改正 施行된 制度에 따라 韓國의 關心品目인 纖維 5個品目. 即 絹絲, 絹紡絲, 綿絲 其他 綿織物, 綿파일織物등에 대한 特惠關稅 適用復活로 纖維類의 輸入促進을 간절히 바랍니다.

(2) 非關稅 輸入規制의 緩和를 要望합니다.

이 問題는 너무나 많이 擧論되어 왔으나 貿易逆調是正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이므로 早速히 是正되어야 할 것을 거듭 促求하는 바입니다.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行政指導에 의한 綿絲등의 輸入規制, 絹織物등의 輸出自律規制, 生絲, 絹撚絲등의 輸入事前承認制등은 是正되어야 할 것입니다. 特히 生絲와 絹撚絲같은 品目은 兩國間에 輸入쿼터를 定해놓고도 1980年分은 當該年度에 輸出이 되지않았고 1981年分은 아직도 쿼타가 合意되지않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입니다.

(3) 日本商社등의 韓國商品 輸入促進을 바랍니다.

日本商社들은 그동안 韓國産品의 対日輸出에 努力을 많이 해왔으나 纖維製品등 輕工業部門에서의 輸出은 減退되고있어 貿易收支改善을 위하여 새로운 商品의 開發輸入擴大등으로 対韓輸入에 加一層 努力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同時에 駐韓日本商社들은 3國間 貿易擴大에 尽力하여 韓國의 輸出增大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3國間 貿易을 계속해서 積極 推進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日本의 各 地方單位의 購買使節團의 派韓을 提議합니다.

긴 眼目으로 볼 때 貿易逆調是正의 根本的 解決의 길은 兩國國民의 大衆的 基盤위에서의 交流增大와 相互理解增進을 바탕으로 産業構造의 改革 技術移轉 通商機會의 增大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日本의 綜合商社등 大企業의 韓國産品 輸入努力 못지않게 韓國과의 交流가 疎遠했던 地方都市의 量販店과 中小商工人을 中心으로한 購買使節團의 派韓이 韓國産品의 対日輸出에 寄與하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日本의 各 地方單位로 많은 購買使節團을 組織하여 派韓하여 주시기 바라며, 同時에 이러한 購買使節團의 派韓이 契機가 되어 日本 地方都市에서의 韓國産品의 展示販賣會등을 빈번하게 갖게되면 兩國間의 通商機會가 보다 增大될 것입니다.

끝으로 貿易逆調是正을 위해서는 日本側의 好意的인 協調努力과 併行하여 우리側에서는 日本市場이 要求하는 需要를 積極的으로 開發하고 同時에 品質向上등으로 日本消費者에게 滿足을 주는 商品을 輸出하는 努力을 繼續하고자 합니다.

多幸히 最近들어 우리나라는 物價가 安定되고 賃金上昇의 鈍化,

品質改善，生産性向上등으로 商品의 國際競爭力이 더욱 强化될 것이므로 兩國間의 協調가 보다 緊密하게 되면 貿易逆調는 是正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参　考　資　料

<表 1 >

對 日 貿 易 收 支 推 移

（單位：1,000 $ ）

年　　度	輸　　出	輸　　入	收　　支
1966	66,293	293,793	△ 227,500
1967	84,726	443,051	△ 358,325
1968	99,745	624,117	△ 524,372
1969	133,326	753,818	△ 620,492
1970	234,329	809,282	△ 574,953
1971	261,988	953,777	△ 691,789
1972	407,876	1,031,085	△ 623,209
1973	1,241,539	1,726,901	△ 485,362
1974	1,380,196	2,620,551	△ 1,240,355
1975	1,292,904	2,433,602	△ 1,140,698
1976	1,801,554	3,098,964	△ 1,297,410
1977	2,148,289	3,926,576	△ 1,778,287
1978	2,627,266	5,981,487	△ 3,354,221
1979	3,353,028	6,656,699	△ 3,303,671
1980	3,039,408	5,857,810	△ 2,818,402
1981	3,444,126	6,373,864	△ 2,929,738
（1966 ～ 1981）	21,616,593	43,585,377	△21,968,784

＜表 2 ＞　　主要品目別對日輸出實績對比表

（單位：1,000弗，％）

品　目	區分	'79	前年比增加率	'80	前年比增加率	'81	前年比增加率
總　計	全體	15,055,453	18.4	17,504,862	16.2	20,992,645	19.9
	日本	3,353,028	27.6	3,039,409	△ 9.3	3,444,126	13.3
	（比重）	（22.3）		（17.4）		（16.4）	
纖維類	全體	4,501,330	13.0	5,014,323	11.4	6,185,807	23.4
	日本	1,266,903	15.4	884,987	30.1	1,018,528	15.1
	（比重）	（28.1）		（17.1）		（16.5）	
＜綿　絲＞	全體	264,534	27.9	332,869	25.8	276,235	△17.0
	日本	203,953	31.1	144,299	△29.2	129,103	△10.5
	（比重）	（77.1）		（43.3）		（46.7）	
＜生絲類＞	全體	81,697	△15.7	65,315	△20.1	25,963	△60.2
	日本	77,357	△ 9.9	61,406	△20.6	21,765	△64.5
	（比重）	（94.7）		（94.0）		（83.8）	
＜合纖絲＞	全體	126,685	38.5	236,283	86.5	241,754	2.3
	日本	27,772	30.0	31,867	14.7	22,288	△30.1
	（比重）	（21.9）		（13.4）		（ 9.2）	
＜綿織物＞	全體	250,877	28.2	285,823	13.9	295,850	3.5
	日本	56,274	56.6	44,824	△20.3	36,017	△19.6
	（比重）	（22.4）		（15.6）		（12.2）	
＜絹織物＞	全體	123,932	2.0	106,936	△13.7	114,220	6.8
	日本	103,281	6.1	82,746	△19.9	81,056	△ 2.0
	（比重）	（83.3）		（77.3）		（71.0）	
＜絞加工品＞	全體	172,832	26.8	61,426	△64.5	82,015	33.5
	日本	140,152	23.5	60,695	△56.7	55,473	△ 8.6
	（比重）	（89.1）		（98.8）		（67.6）	
＜衣　類＞	全體	2,473,785	9.9	2,662,650	7.6	3,532,736	32.7
	日本	529,562	18.1	370,698	△30.0	544,973	47.0
	（比重）	（21.4）		（13.9）		（15.4）	

品目	區分	'79	前年比增加率	'80	前年比增加率	'81	前年比增加率
水産物	全體	855,539	23.9	759,435	△11.2	931,686	22.7
	日本	608,664	29.5	538,498	△11.5	655,741	21.8
	(比重)	(71.1)		(70.9)		(70.4)	
<遠洋魚類>	全體	453,315	53.8	351,866	22.4	427,622	21.5
	日本	171,507	43.5	149,926	12.5	198,541	32.4
	(比重)	(37.8)		(42.6)		(46.4)	
<活鮮魚>	全體	119,126	6.4	128,251	7.7	152,509	18.9
	日本	111,354	11.5	121,035	8.7	143,141	18.3
	(比重)	(93.4)		(94.4)		(93.9)	
<冷凍魚類>	全體	168,019	24.0	102,656	△38.9	114,854	11.9
	日本	111,790	17.3	87,676	33.4	111,370	27.0
	(比重)	(66.5)		(85.4)		(97.0)	
電子製品	全體	1,808,188	29.6	2,003,801	10.8	2,218,568	10.7
	日本	205,994	16.2	294,150	42.8	305,100	3.7
	(比重)	(11.4)		(14.6)		(13.8)	
<電子部品>	全體	785,267	26.9	904,218	15.1	969,491	7.2
	日本	158,508	14.4	237,992	50.1	258,213	8.5
	(比重)	(20.1)		(26.3)		(26.6)	
鐵鋼製品	全體	1,259,638	82.6	1,854,076	47.2	2,213,357	19.4
	日本	163,959	307.7	283,785	73.1	390,273	37.5
	(比重)	(13.0)		(15.3)		(17.6)	
<鐵鋼板>	全體	504,582	54.6	646,390	28.1	893,251	38.2
	日本	105,502	1,064	170,360	61.5	322,370	89.2
	(比重)	(20.9)		(26.4)		(36.1)	
신발類	全體	765,361	5.4	904,200	18.1	1,049,323	16.0
	日本	129,609	15.9	99,175	△23.5	108,377	9.3
	(比重)	(16.9)		(10.9)		(10.3)	
타이어·튜브	全體	325,282	52.1	477,082	46.7	459,108	△ 3.8
	日本	18,726	33.3	16,672	△11.0	10,026	△39.9
	(比重)	(5.7)		(3.5)		(2.2)	

品　　目	品分	'79	前年比增加率	'80	前年比增加率	'81	前年比增加率
合成樹脂製品	全體	458,190	12.5	570,818	24.6	604,743	5.9
	日本	50,316	22.5	77,627	54.3	100,987	30.1
	(比重)	(10.9)		(13.6)		(16.7)	
人蔘製品	全體	64,424	3.6	63,312	1.7	57,539	△ 9.1
	日本	18,259	12.9	19,238	5.4	23,939	24.4
	(比重)	(28.3)		(30.3)		(41.6)	
合板	全體	447,928	8.7	352,199	21.4	391,645	11.2
	日本	15,506	96.4	12,907	△16.8	1,445	△ 88.8
	(比重)	(3.4)		(3.6)		(0.4)	
木材	全體	115,308	44.5	82,262	△28.7	48,483	△41.1
	日本	89,592	119.9	48,232	△46.2	12,572	△ 73.3
	(比重)	(77.7)		(58.6)		(25.9)	
石製品	全體	61,908	32.5	57,682	△ 6.8	67,393	16.8
	日本	61,082	35.3	57,187	△ 6.4	66,609	16.5
	(比重)	(98.6)		(99.1)		(98.8)	
化工藥品	全體	154,946	93.4	182,890	18.0	193,168	5.6
	日本	92,895	154.0	100,730	8.4	108,894	8.1
	(比重)	(59.9)		(55.0)		(56.4)	
機械類	全體	607,707	62.0	606,296	△ 0.2	565,747	△ 6.7
	日本	41,929	5.5	65,182	55.5	53,620	△17.7
	(比重)	(6.9)		(10.8)		(9.5)	
<時機類>	全體	85,093	13.8	124,970	46.9	171,480	37.2
	日本	13,382	3.1	19,775	47.8	18,756	△ 5.1
	(比重)	(15.7)		(15.8)		(10.9)	

資料：韓國貿易協會

＜表 3＞ 主要品目別対日輸入實績対比表

（單位：1,000弗，%）

品目	區分	'79	前年比增加率	'80	前年比增加率	'81	前年比增加率
總計	全體	20,338,611	35.8	22,291,663	9.6	26,132,012	17.2
	日本	6,646,404	11.5	5,857,810	△11.9	6,373,864	8.8
	(比重)	(32.7)		(26.3)		(24.4)	
鑛物性燃料及生產品	全體	4,182,634	55.2	7,234,895	73.0	8,473,591	17.1
	日本	126,843	27.9	190,917	50.5	203,735	6.7
	(比重)	(3.0)		(2.6)		(2.4)	
有機化合物	全體	999,481	69.0	988,249	△ 1.1	1,034,783	4.7
	日本	624,155	54.5	511,711	△18.0	447,420	△12.6
	(比重)	(62.4)		(51.8)		(43.2)	
人造樹脂	全體	449,485	53.9	279,838	△37.7	327,754	17.1
프라스틱物	日本	217,744	8.0	157,822	△27.5	182,413	15.6
質及製品	(比重)	(48.4)		(56.4)		(55.7)	
人造(長·短)纖維織物	全體	304,054	16.1	281,275	△ 7.5	353,645	25.7
	日本	224,847	1.9	223,284	△ 0.7	247,398	10.8
	(比重)	(73.9)		(79.4)		(70.0)	
鐵鋼及製品	全體	1,508,667	19.2	1,377,582	△8.7	1,386,087	0.6
	日本	1,056,921	21.2	929,108	△12.1	897,339	△ 3.4
	(比重)	(70.1)		(67.4)		(64.7)	
＜鐵鋼의코일＞	全體	343,866	33.2	349,200	1.6	242,035	△30.7
	日本	310,127	48.4	299,159	△ 3.5	196,171	△34.4
	(比重)	(90.2)		(85.7)		(81.1)	
＜鐵鋼의板＞	全體	140,249	△ 12.6	140,774	0.4	174,222	23.8
	日本	132,615	△ 12.2	138,569	4.5	172,509	24.5
	(比重)	(94.6)		(97.9)		(99.0)	
＜合金鋼高炭素鋼＞	全體	287,420	29.4	271,655	△ 5.5	291,892	7.4
	日本	268,056	25.2	253,620	△ 5.4	256,504	1.1
	(比重)	(93.3)		(93.4)		(87.9)	
産業機械類	全體	3,364,707	31.2	2,307,751	△31.4	2,511,755	8.8
	日本	1,701,284	10.8	1,239,097	△ 7.2	1,149,117	△ 7.3
	(比重)	(50.6)		(53.7)		(45.8)	

品　目	區 分	'79	前年比增加率	'80	前年比增加率	'81	前年比增加率
<펌프類>	全　體	227,680	58.3	127,990	△43.8	143,692	12.3
	日　本	129,822	41.0	68,267	△47.4	80,544	18.0
	(比重)	(57.0)		(53.2)		(56.1)	
<織維機械類>	全　體	358,150	△32.1	178,128	△50.3	206,790	16.1
	日　本	192,117	△ 1.2	99,107	△48.4	146,385	47.7
	(比重)	(53.6)		(55.7)		(70.8)	
<金屬加工機械類>	全　體	310,846	24.2	173,761	△44.1	129,648	△25.4
	日　本	181,952	△ 9.3	119,557	△34.8	45,558	△61.9
	(比重)	(58.5)		(68.8)		(35.1)	
<電氣器機및部品>	全　體	1,541,355	28.3	1,475,482	△ 4.3	1,793,314	21.5
	日　本	843,200	21.4	733,016	△13.1	870,807	18.8
	(比重)	(54.7)		(49.7)		(48.6)	
<無線通信器機類>	全　體	193,935	11.7	195,251	0.7	198,314	1.6
	日　本	136,004	6.7	124,202	△ 8.7	138,755	11.7
	(比重)	(70.1)		(63.6)		(70.0)	
<開閉器類>	全　體	280,070	46.4	226,098	△19.3	242,954	7.5
	日　本	157,993	32.6	123,192	△22.0	144,716	17.5
	(比重)	(56.4)		(54.5)		(596)	
<電子管半導體>	全　體	468,023	21.3	527,006	12.6	611,780	16.1
	日　本	147,733	3.8	188,580	27.6	249,499	32.3
	(比重)	(31.6)		(35.8)		(40.8)	
<自動車및部品>	全　體	331,274	△ 20.7	185,571	△44.0	210,538	13.5
	日　本	186,192	△ 36.3	107,438	△42.3	125,058	16.4
	(比重)	(55.7)		(57.9)		(594)	
船舶수상구조물	全　體	315,797	△ 21.4	472,029	49.5	872,979	84.9
	日　本	111,628	△ 62.3	145,292	30.2	223,586	53.9
	(比重)	(35.3)		(30.8)		(25.6)	
光學·醫療測定器機	全　體	345,454	45.0	301,799	△ 12.6	327,329	8.5
	日　本	182,949	30.1	158,557	△ 13.3	154,295	△ 2.7
	(比重)	(53.0)		(52.3)		(47.1)	
錄音器및音声再生器等	全　體	160,921	22.9	144,967	△ 9.9	158,294	9.2
	日　本	138,601	19.7	123,398	△10.9	138,742	12.4
	(比重)	(86.1)		(85.1)		(87.7)	

(資料：韓國貿易協會)

在韓日本商社등의 스테이터스問題 및 課稅問題

伊藤忠商事株式會社
取締役 小林 哲郎

伊藤忠商事의 小林입니다.

오랫동안의 懸案인 駐韓 日本商事등의 스테이터스問題 및 課稅問題에 대하여 日本側의 要望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입니다.

두 問題 모두 当会議 또는 貿易拡大均衡委員会 会議를 통하여 몇번씩 協力과 理解를 부탁드린 바 있어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內容說明은 생략하겠읍니다.

1. 스테이터스 問題에 관하여

앞서 京本委員長의 報告에서도 言及되었읍니다만, 昨年 7月 韓国貿易去来法 施行令의 改正으로 駐韓日本企業도 輸出入業이 可能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큰 前進으로, 朴泰俊会長을 비롯, 韓国側 委員 여러분의 支援과 配慮의 덕분임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改正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制限條件과 또 明確하지 않는 점이 여러가지 있어 日本企業은 모두 輸出入 許可申請을 하고 있지 못하는 実情입니다.

즉

1) 韓国에로의 輸入에 대해서는

① 855業種品目中 8業種品目만이 認定되고 있으며

② 自社 또는 持株比率 30%以上의 系列会社 製品에

限定하고 있으며

③ 在庫販売가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읍니다.

2) 韓国으로부터의 輸出에 対해서는

輸出自動承認品目에 限定되어 韓国輸出의 大宗이 되고 있는 輸出制限品目은 除外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制限이 있어 自由로운 輸出入業이 認定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内容입니다.

아시다시피 貴国의 綜合商社는 日本에 있어서 우리들과 무엇하나 다름없이 自由로운 営業活動이 認定되고 있읍니다.

또 欧美諸国뿐 아니라 아시아 主要国에서도 外国企業의 輸出人業을 認定하고 있는 実情입니다.

우리들 日本商社는 世界的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日本과의 貿易뿐만 아니라 三国間 貿易拡大에도 注力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駐韓日本商社가 日本에서의 貴国商社와 같은 法的地位를 갖게 된다면 自身의 判断과 리스크로, 또 貴国企業과의 有機的인 協力으로 韓日両国間의 貿易拡大뿐만 아니라 第3国 市場開拓에 의한 貴国의 輸出拡大에도 반드시 貢献할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改正施行令에 있어서는 各種制限의 완화 또는 弾力的 運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韓国側 委員 여러분의 理解와 각별한 協力을 부탁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2。課税問題에 対하여

駐韓日本商社에 대한 課税上 최대의 問題는 出資関係가 있는 母子会社間의 去来에 適用되고 있는 貴国 国税庁指定의 標準手数料率, 소위 「認定口銭率」의 問題임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本件에 対해서도 재작년 1月 一部引下調整이 있어 올 4月 1日부터 認定口銭率適用에 軽減措置가 취해져 약간이지만 改善된 것은 韓国側 委員여러분의 支援의 덕택임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로서도 貴国法律에 따라 支店을 開設하여 오퍼商으로 活動하고 있는 以上, 公正·合理的인 課税는 당연한 것으로 어떠한 異議도 없읍니다.

그러나 駐韓支店이 실제로 받는 口銭額과는 関係가 없는, 税務当局이 独自的으로 認定하는 高率의 口銭率에 의해 口銭所得을 算定하는 現行方式은 매우 不合理하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日本商社의 口銭은 대단히 낮아 오퍼商으로서의 駐韓支店이 받는 口銭은 보잘것 없는 規模입니다. 따라서 認定口銭率에 의해 課税되고 있기 때문에 태반의 去来가 赤字가 되고 있는 実情입니다.

저희들은 実態에 의한 合理的인 課税가 이루어지도록 貴国関係当局에 認定口銭率을 包含하여 課税問題 全般에 대해 加一層의 改善要請을 계속하겠읍니다만 韓国委員 여러분의 적극

적인 支援을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읍니다만 本合同委員會의 下部組織인 經濟協力 長期構想研究 및 貿易拡大均衡 両委員会에서도 단순히 両国間 貿易의 拡大뿐만 아니라 第3国市場에서의 両国의 協力이 더욱 이루어지도록 앞으로의 重要課題로 討議되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도 相互平等互恵의 精神으로 各種分野, 地域에서 貴国企業과의 協力関係를 더욱 깊게 해가고자 합니다.

매번 같은 要望을 되풀이 하는 것은 결코 저희들의 本意는 아닙니다.

그러나 貴国과의 貿易関係를 보다 多角的으로 拡大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問題가 큰 障害가 되고 있음을, 両国経済界를 代表하는 분들이 모인 이 機会에 깊은 理解와 協力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在韓外国商社의 STATUS, 課税問題에 対한 答弁

(株) 雙 龍
會 長 禹 容 海

至今 日本側에서 協力을 要請하신 案件은 本 会議에서는 낯익은 課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懸案이었던 駐韓外国商社의 輸出入許容 問題는 1981.7.23日字 貿易去来法施行令의 改正으로 그 門戶가 열리기 始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번措置는 처음으로 試図한 것이기 때문에 外国商社의 営業活動을 全面的으로 許容한 것이 아니고 部分的 制限을 하고 있음이 事実입니다.

이러한 制限은 우리나라 貿易業体等 国内企業의 指導育成上 現段階에서는 不可避한 것으로 理解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나 第5次経済社会発展5個年計劃을 遂行하는 우리나라의 経済政策基調는 開放体制를 指向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現制度의 運用成果를 評価해 가면서 輸出入業이 許容되는 流通業種을 漸進的으로 拡大해 가는等 外国商社의 営業活動의 自由化幅을 넓혀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駐韓日本商社의 認定課税問題에 対하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뜻은 韓国의 税務当局에 充分히 伝達되고 있으나 韓国의 租税制度나 課税技術上 여러분의 뜻에 即時 副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韓国의 税務当局으로서는 課税基準料率에 対하여 1980

年 1月1日과 또다시 今年 4月1日字로 大幅引下함으로써 계속하여 調整作業을 試図하고 있음이 事実입니다.

本人은 今般 会議参席에 앞서 税務高位責任者와 이 問題에 対하여 相互意見을 交換한 바 있으며 当局으로서도 広範한 資料를 収集하여 계속 検討할 뜻이 있음을 알았읍니다.

여러분의 協調要請에 対하여 이자리에서 시원한 答辯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未安하오나 오늘 日本側이 指摘하고 提議한 内容은 다시 関係政府当局에 充分히 伝達하여 여러분의 뜻이 反映되도록 協調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日本의 対外経済政策에 대하여

兼松江商株式會社
常務取締役 近本 行一郎

日本의 経済와 世界経済의 相互依存関係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오늘날 国内政策 수행에 있어서 항상 対外的인 観点도 無視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対外経済政策 立案에 있어서 世界의 政治情勢, 각국의 経済運営実態를 正確히 把握하지 않으면 안되는 実情입니다.

昨年 10 月의 経済政策閣僚会議에서 「当面의 経済政策」에 대하여 物価의 安定, 内需의 回復, 不況産業対策, 貿易拡大均衡등 네가지 基本方針이 決定되었읍니다만, 그뒤의 日本経済動向은 여전히 内需停滞, 経常収支 黒字傾向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한편 世界各国의 経済政勢는 全体的으로 第 2 次 石油쇼크로부터 回復되지 않아 많은 나라가 인프레와 失業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現状입니다.

이상의 状況을 참작하여 昨年 12 月의 経済対策閣僚会議에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対外経済政策이 方針으로 세워져 順次 具体策이 検討되게 되었읍니다만 어디까지나 自由貿易主義의 維持·強化를 위한 内需回復을 基本으로한 貿易拡大均衡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対策으로 첫번째 내세운 것은 市場開放이며 모두 아시는바와 같이 올 1 月 30 日 輸入検査節次등의 改善措置에 대하여

A. 改善措置를 강구한 것이 67 事例

B. 계속 検討키로한 9 事例가 発表되었읍니다.

이것은 輸入促進의 面에서는 原則的으로 国際基準에 맞춘 改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上記 事例가운데 「電気製品의 試験検査機関의 韓国代行機関의 認可」라는 項目도 包含되고 있으며 또 電気製品의 規制緩和로서 海外試験機関이 実施한 家電製品의 試験데이타를 받아들여 輸入때 必要한 型式許可節次도 6월하순께부터 簡素化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事項은 貴国으로서는 対日輸出에 적지않은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市場開放問題 고충処理를 신속히 또 正確히 하기위해 市場開放問題苦情処理推進本部의 設置와 関係各省의 12곳에 接受窓口를 設置하였으며 또 通産省에서는 輸入検査節次등의 苦衷処理窓口를 本省과 함께 地方通産局에 設置하여 諸外国의 対日輸出促進을 위한 加一層의 努力과 협력을 하기로 된 것입니다.

市場開放의 第2의 対策으로 輸入制限의 완화가 있읍니다만 이것은 現在 残存하는 輸入制限 27品目에 대한 적절한 検討가 이루어질 豫定으로 있읍니다.

제3의 関税率 引下에 대해서는 東京라운드에서 日本이 1980年부터 1987年 사이 関税率의 단계적 引下措置를 약속한 品目가운데 1,653品目은 2年間 앞당겨, 즉 1984年에 実施할 豫定分까지 今年度에 引下를 実施하게 되었읍니다. 이는 政府로서는 450億엔의 関税収入이 減少가 되는것입니다만 国際協調라는 観点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商品이 包含되어 있어 貴国의 対日輸出促進에도 상당한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東京라운드서 決定한 日本의 關稅引下는 1987年 最終達成때에는 日本의 平均關稅率은 3%로 되어 美国의 4.2%, EC의 4.9%를 크게 밑돌게되는 것입니다.

다음, 輸入促進策입니다만, 緊急수입을 위해 外貨貸付가 豫定되고 있으며 지난 6일의 発表를 보면 対美, 対EC가 主된 対象이 되고 있읍니다만 5月上旬에 이 制度를 活用한 製品輸入拡大도 고려되고 있읍니다.

이밖에 石油, 레어메탈, 外国産穀物의 備蓄이 豫定되고 있으며 또 輸入미션派遣, 製品展示会 開催에 의한 促進도 対策의 한 方案으로 具体化될 豫定입니다.

経済対策으로 이 밖에 輸出対策, 経済協力対策도 包含되고 있으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諸外国과의 相互依存을 主流로 実行에 옮겨지기를 期待하고 있읍니다.

以上이 日本의 対外経済政策의 骨子입니다만 世界各国의 経済発展은 自由貿易主義에 바탕을 둔 貿易拡大均衡이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日本으로서도 그러한 線에 따라 努力하고 있으며 이 점 貴国에서도 충분히 理解하셔서 韓日両国의 経済発展, 나아가서는 세계의 経済発展을 위해 두나라가 힘을 합하여 貢献되도록 기원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조용히 들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韓国 /美国貨物의 日本船 利用에 대하여

日本船主協會
常務理事 三上良造

이미 合同会議를 통하여, 韓国「海運振興法 施行令」에 따라 日本船舶社의 一部가 韓国-美国定期航路의 貨物船積이 규제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韓国側이 이 航路에서는 本法의 적용에 어떤 救済措置를 하여주도록 善処를 要望한 바 있읍니다.

그때부터도 日本船에 의한 韓-美 貨物輸送에 대한 웨이버 申請은 이미 韓国当局에 의해 수리된 状況입니다만 本 航路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에 말씀드린 貴国 法律의 運用에서 救済措置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昨年에 이어 계속 要請드리는 바입니다.

共 同 声 明

第14回 韓日·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 会議는 1982年 4月13日부터 15日까지 日本国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韓国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経済委員会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0名의 代表團이 그리고 日本側에서는 日高 輝 日韓経済委員会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7名의 代表團이 参加하였다.

会議에서는 韓日兩国을 둘러싼 最近의 国際環境과 兩国의 経済情勢를 検討함으로써 兩国間 協力의 必要性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는데에 認識을 같이하고 経済協力, 産業技術, 貿易増進등 各分野에서 兩国民間経済協力의 當面 諸問題 및 中長期的 観点에서 協力하여야 할 課題등에 対하여 具體的인 検討와 意見을 交換하였다.

韓国側 代表團은 目下 兩国 政府間에 交渉中인 第5次 経済社会発展 5個年計劃에 関한 懸案의 経済協力問題가 可及的 速히 解決될 것을 強力히 要望하였다. 또한 韓国側 代表團은 同 5個年計劃의 順調로운 進展이 兩国間의 民間経済協力의 促進에도 重要한 影響을 갖는 것을 強調하였다.

日本側 代表團은 이러한 韓国側의 要望에 応하도록 이를 速히 日本政府에 伝達할 것을 約束하였다.

아울러 日本側은 各者의 立場에서 그 趣旨実現에 協力할 뜻을 表明하였다.

本 会議에서 検討 및 合意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Ⅰ. 經 濟 協 力

(1) 韓日·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会의 第1回 및 第2回 合

同会議報告를 異議없이 採択하였다.

(2) 中小企業協力専門委員会設置 推進現況의 報告가 있었으며 中核委員으로써 委員会를 発足시켜 事業推進을 具體化할 것에 合意하였다.

(3) 韓国의 第5次 経済社会発展5個年計劃의 説明이 韓国側으로부터 있었으며 日本側은 이에 깊은 関心을 表明하였다.

(4) 造船工業関係에 있어 韓日両国間에 協力이 必要하다는 日本側意見이 提示되었고 韓国側도 相互協力이 바람직스럽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Ⅱ. 産業技術

(1) 第7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専門委員会 合同会議의 報告를 採択하고 또한 両国政府間의 合意에 依한 日本側의 対韓投資調査團 派遣時에는 実質的인 協議가 이루어지도록 本 民間合同経済委員会에서도 協力하여줄 것과, 派遣時期는 늦어도 今年 6月以内로 実施되기를 바란다는 韓国側 要請에 対하여, 日本側은 이를 肯定的으로 検討, 今年 5月로 豫定되어 있는 第8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専門委員會 合同会議에서 同 調査團의 早期派遣 및 同 調査團의 訪韓에 있어서는 実質的인 協議가 이루어지도록 政府에 積極的인 要望을 하는 決議를 할 것에 合意하였다.

(2) 中堅·中小企業 技術協力分野에서 韓国側은 韓国技術者의 日本内 訓練実施와 韓国内 訓練을 為한 要員派遣을 要請하였으며 日本側은 中堅·中小企業協力専門委員會를 通하여 이를 具

體化시킬 것에 合意하였다.

(3) 経済情勢에 対応하는 日本의 産業動向과 展望에 対하여 日本側의 説明이 있었으며 韓国側은 自国産業構造의 改編에 當面하고 있는 立場에서 日本의 不況業種 調整政策등에 깊은 関心을 表明하였다.

Ⅲ. 貿 易

(1) 第9回 韓日·日韓貿易拡大均衡委員会 会議結果報告를 異議없이 採択하였다.

(2) 韓国側은 韓日間의 貿易不均衡이 継続 大幅임을 勘案, 그 是正을 為하여 韓国側에 있어서 対日需要에의 適応, 品質向上등에 対한 継続的 努力을 하여야할 것은 勿論이나

(i) 日本의 特恵関税適用輸入限度의 拡大 및 1981年4月에 特恵対象에서 除外된 絹, 綿絲, 綿織物等 繊維関係 5品目의 特恵復活

(ii) 日本의 行政指導에 依한 輸入規制, 対日輸出 自律規制와 輸入事前承認制등의 非関税障壁除去 및 生絲等에 있어서 2国間 合意事項의 確実한 実施

(iii) 日本商社등에 依한 韓国産品의 対日輸出 및 第3国間 貿易의 継続的 増進

(iv) 日本의 各 地方単位에 依한 韓国産品購買使節團의 派韓에 対하여 日本側의 協力을 要請하였다.

日本側은 以上의 諸点에 対하여 日本의 実情을 詳細히 説明함과 더불어 上記 (i)(ii)(iii) 項의 韓国側要請을 政府當局 및 関係機関에 伝達할 것을 約束하고 改善에의 協力을 表明하였

다. 또한 (iv)項에 関하여는 各 地方商工会議所등 関係機関의 協力을 얻어 具體的인 計劃下에 購買團 或은 購買調査團 派遣을 実施할 것에 合意하였다.

(3) 日本側은 1981年7月의 韓国貿易去来法 施行令改正이 駐韓日本企業의 法的地位改善을 指向하고 있는 것에 対하여 韓国側의 努力에 感謝하면서, 輸出入業 許可業種에 対한 制限, 取扱商品 系列企業에 対한 制限등 自由스러운 輸出入業活動을 阻害하는 要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指摘, 駐韓日本企業의 法的地位改善을 위하여 継続的인 韓国側의 協力을 要請하였다. 또한 日本側은 오파 去来에 있어서의 韓国側의 認定手数料率適用이 더욱 合理的으로 改善되도록 韓国側의 支援을 要請하였다.

이에 対하여 韓国側은 韓国側의 実情과 改善된 内容을 説明하고 또한 日本側의 要請을 関係當局에 伝達할 것을 約束하고 改善에 協力할 意向을 表明하였다.

(4) 韓国側의 要請에 応하여 日本側은 激動하는 内外情勢下에 있어서의 最近의 対外 経済政策에 대하여 詳細히 説明하고 自由貿易, 市場開放을 向한 政策展開가 重要한 것임을 表明하였다.

(5) 海運協力에 関하여 日本側은 韓美定期航路에 있어서 日本船의 貨物積取規制에 対하여 救済措置가 講究되도록 韓国側의 協力을 要請하였으며, 韓国側은 関係當局 및 團體에 이를 伝達할 것을 約束하였다.

Ⅳ. 次期會議는 明春 兩側에서 合意하는 時期에 서울에서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다。

1982 年 4月 15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 團長 日 高 輝

閉　会　辞

韓日経済委員会
委員長　朴泰俊

지금 日高 団長님께서 매우 鄭重한 人事말씀을 하여주신데 対하여 먼저 感謝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지난 13日부터 連3日間 本 合同会議에 参席하여 真摯한 討論을 하여 주시고 共同声明을 採択하기까지 尽力하여 주신 両側 代表団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合同会議는 이것으로써 끝납니다마는 共同声明에서 採択한 課題는 이제부터 両側代表団 여러분이 協力하여 推進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漸漸 어려워지는 国際経済秩序속에서 両国経済界가 하여야 할 責任이 莫重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共同声明에도 両代表団의 뜻에 依해 反映되었읍니다마는 懸案인 政府間의 経済協力問題가 円満하게 妥結되고 이것이 導火線이 되어 民間次元에서도 幅넓은 協力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特히 日本側 代表団 여러분께서는 韓国의 第5次5個年計劃에 対하여 깊은 理解를 하여 주시고 韓国이 必要로 하고있는 良質의 資本과 技術面에서 크게 協調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会議를 通하여 各 専門委員会의 活動이 刮目할 만하게 発展되었다는 것이 確認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들 専門委員会의 活動이 보다 具体的으로 内実을 期하는 方向으로 運営될 때 両国間의 経済協力은 보다 큰 成果를 挙揚할 것으로 믿어 各 委員会의 活動에 期待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의 会議가 큰 成果를 내고 円満하게 끝나게 된 것은 日

高 団長을 비롯한 日韓経済協会 事務当国의 慎重한 事前準備와 両側代表団의 協力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来年의 서울 会議에도 이번 会議以上으로 多数 参席하여 주시어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事業이 더욱 繁昌하시고 또한 健勝하심을 바라고 来年에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을 祈願하면서 閉会辞에 가름할까 합니다.

感謝합니다.

閉　会　辞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日高 輝

방금 採択된 共同聲明에 의하여 今番 第14回 韓日・日韓民間合同経済委員会 会議는 終了하였읍니다.

이에 閉会에 즈음하여 本会議의 議長을 担当케 되었던 本人으로서 両国代表団 여러분에 대하여 謝意를 表함과 더불어 이 会議의 意義와 今後의 運営등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本 合同委員会会議는 1969年 第1回会議를 開催한 以来 一回도 欠함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이것은 開会時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여러분을 비롯하여 本人으로서도 가슴깊이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国際間의 情勢는 最近 갑자기 複雜해지고 또한 不安定의 様相을 깊이 하고있어, 各国모두 이에 對応하는 諸般施策은 쉽지않은 바가 있읍니다.

韓日両國 関係에 있어서도 時代의 變遷에 따라 過去의 両国이 近隣이라는 地理的, 歷史的 結附外에 새로운 世代에 適応한 交流의 體制가 새로이 要求되고 있음을 痛感합니다.

両国民間経済交流에 있어서도 이러한 變化를 機敏하게 吸收하여, 보다 깊은 相互理解의 바탕위에 서서 適切한 措置의 具體化를 必要로 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읍니다.

이 점에서 볼때, 両国모두 自由主義経済圏 가운데서 貿易立国이라는 国是를 같이하는 立場에서 共存共栄을 図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基本的 前提가 새로이 提起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純粋하게 民間経済界에서 活躍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이 会議도 어디까지나 民間의 立場에 서서 새로운 世代를 맞이하여 어떻게 對処하고 어떻게 協力하여 갈 것인가하는 課題에 대하여 協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本 合同委員會에선 그때문에도 必要에 따른 專門的인 委員会를 下部에 組織하고, 定期的인 検討를 거듭하고 있읍니다만, 要는 이들의 論議過程속에서 알맹이있는 具體策과 그 成果가 産出되어야 할 것입니다. 今番, 今年부터 實施되고 있는 韓国의 「第5次 経済社会発展 5個年計劃」에 관하여 説明을 들었읍니다만 両国経済協力의 基軸은 官民모두 이 計劃目標 達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입니다.

韓国側에서 要望이 있었던 両国政府間의 経済協力案件의 早期解決에 관하여는 우리들도 우리나라 政府에 早速히 伝達, 解決에의 努力을 할 것입니다만, 民間은 民間으로서 経済的 合理性에 適合한, 더우기 새로운 世代와 国際環境을 考慮한 協力의 體制를 確立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생각합니다.

両国代表団여러분, 今番의 会議에서의 検討 및 合意事項에 대하여 充分한 配慮를 해주시고, 그 實現에 努力할 것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今番엔 韓国側에서 多数 参席을 하여주셨고, 또한 진지한 討議

를 할 수 있었던 것을 主催国 團長으로서 議長을 担当케 되었던 本人이 日本代表団 一同에 代身하여 깊은 人事를 드림과 同時에 이 会議가 今後에도 両国民間経済交流増進을 위하여 오래동안 繼續될 것을 強力히 期待하며 閉会의 人事로 가름합니다.

또한 来年 韓国에서 뵙게될 것을 즐겁게 기다리겠읍니다.

感謝합니다.